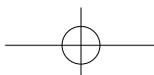


造景士

Autumn 2017 NO.105



(사) 한국조경사회
Kore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01 인사말 3

- 이승용(본회 부회장)

02 특집: 동탄 공공정원(작가정원) 4

- 동탄 공공정원(작가정원) 기획의도 및 소개/김옥근(LH 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2부 차장)
- 동탄 공공정원(작가정원) 작품소개 및 에필로그/동탄 공공정원(작가정원) 작가8인
 - 지구정원/정주현(경관제작소 외연 대표)
 - 느릿느릿 걷는 구부러진 길/임춘화(아이디얼가든 대표)
 - 동탄소원/김용택(KnL환경디자인 스튜디오 소장)
 - 카루스 정원/조동범(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휘원/윤영주((주)디자인필드 대표이사)
 - 동탄이 꾸는 꿈, 몽탄원/홍광표(동국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신작로의 꿈/이재연(조경디자인 린(주) 대표이사)
 - 집으로 가는 길/이선화(지호디자인 대표)

03 연재코너 22

- 회원사탐방:서인조경(주)/박영준(대표이사)
- 우리들의 조경이야기/주신하(서울여자대학교 교수)

04 본회소식 28

- 2017 제14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시상식 및 초대작가전
- 제27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부제:조경인 한마음 대축제)
- 나는 조경가다 시즌5(부제:당신의 정원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 제4회 아름다운 조경·정원사진 공모전/시상식 및 전시회
- 2017 사목회

05 지회소식 32

- 부산시회
- 울산시회
- 대구경북시도회

06 공지사항 및 회원동정 35

- 공지사항
- 회원동정
- 회비내역 및 협찬

07 기업회원사 42

造景士

발행처 | (사)한국조경사회 발행인 | 최종필 편집인 | 제상호, 오화식 사무국 | 이주연, 이지영 편집 | 예향아트 발행일 | 2017. 11
(사)한국조경사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잠실한신코아오피스텔 401호(우.05510) Tel | 02-565-1712 Fax | 02-565-1713

표지사진 | 본회 기업회원사 소개

인사말



이승용 / 본회 부회장
(주)서원이앤씨 대표이사

아침 저녁으로 코 끝에 부딪히는 싸늘함이 가을의 깊어감을 느끼게하고 도화지에 붓칠해 놓은 듯한 청명하고 아름다운 가을하늘을 바라보노라면 진한 블랙커피에 잔잔한 클래식을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고 싶은 계절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말을 합니다. 가을은 조경인에게도 일년을 마무리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농부가 여름내 피와 땀으로 가꾼 곡식을 거두어들이듯 조경인 또한 한해동안 진행하며 벌려 놓았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중요한 계절입니다.

지금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동안 개발에 편승하여 앞만보고 달려온 우리 조경인들에게는 현실이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을보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못한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기반시설SOC이 포화상태로 더이상 개발할 토지도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GDP의 20%를 넘나들던 SOC사업이 10%대 초반으로 자리를 잡고 향후 5년 이내에 한자리 수로 줄어들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조경산업도 축소될 것이고 일자리 또한 사라지겠지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원여러분 우리가 현실에만 안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거라고는 누구도 예상못한 결과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식못한 사이에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앞으로 변화할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개인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기업은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차근차근 준비하다보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듯 조경에 한정하지 말고 넓게보고 타 업종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난 일년의 시간을 조경사회와 함께 하면서 열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며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조경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경사회 회원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특히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특집: 동탄2신도시 공공정원(작가정원)

기획의도 및 소개



김옥근 / LH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2부 차장

기획의도 및 방향

- LH가 만드는 공원은 새로운 트렌드 및 수요에 맞게 달라져야 하고 어디를 가나 똑같이 보이고 단순히 공원 숫자만 늘어나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신도시내에서 삶의 가치를 창출하고 녹색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질적인 공간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 동탄2신도시의 핵심중앙공원 역할을 하는 근린공원7호(동탄여울공원, 면적 300,387㎡)는 신도시 특화 및 지역명소화를 위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새로운 정원문화요소가 필요하였으며 입주민과 지자체 및 내부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향후 유지관리가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공원융합형 정원모델을 제시하고자 LH 최초로 공공정원(작가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LH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의 코리아가든쇼, 서울정원박람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사례조사를 통해 공원계획과 최대한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정원조성, 유지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원 등 공원과 정원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공원속에 정원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원조성 초기단계부터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공원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작가들의 자유로운 창의성 발휘 및 향후 공원계획 변경시에도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정원 기본면적(150㎡/작가1인)을 제시 하였으나 주변공간까지 활용하도록 면적의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정원조성 후 유지관리는 작가가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용을 조성 후 일정기간 지원함으로써 영구적인 공간으로서 작가가 작품에 대한 책임감 및 애착심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 동탄 정원을 담다! 큰 틀의 주제를 선정하여 화성시의 역사 및 문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장소성 및 지역성을 제고하고 신도시 입주민들의 정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정원문화의 가치를 향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경위

- '16.04.04일 수도권 마지막 대규모 사업지구인 동탄2신도시내 특화요소 도입을 통하여 지역명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LH는 근린공원7호내 공공정원 조성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16.05.19일 근린공원 7호 공공정원(작가정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화성시-LH-(사)한국조경사회가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시는 작가정원의 행정지원 및 작가정원의 인수인계 후 유지관리 LH는 작가정원 조성 및 작가정원 공모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역할을 하고 한국조경사회는 작가정원 공모 주관 및 새로운 공원융합형 정원모델 제시 등 역할분담을 하였습니다.



소개

- 위치 : 동탄(2)신도시 오산천과 연결한 여울공원
- 사업면적 : 300, 307㎡(근린공원 7호)
- 정원규모 : 1,350㎡(1개소당 150㎡x9개소)
- 참여작가 : 정주현, 안계동, 임춘화, 김용택, 조동범, 윤영주, 홍광표, 이재연, 이선화

- 작가정원 공모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LH와 한국조경사회는 '16.09.29일 공공정원(작가정원)공모 운영용역을 계약체결하여 본격적인 공공정원(작가정원) 공모 방안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실무협의 및 논의과정을 통하여 당초에는 일반공모를 통하여 작가 및 작품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동탄2신도시의 중요성과 입주민 만족도 및 작품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경쟁력 있는 국내유명작가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여 한국조경사회에서는 '17.05.10일 정원관련 7개 기관/단체에 작가를 선정하기 위한 작가선정위원회와 정원작가 5인씩을 추천 받았습니다.
- '17.05.18일 총 39명의 작가 pool구성 후 '17.05.26일 한국조경사회 주관으로 작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작가 10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작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작가1인이 공사포기를 하여 현재 작가 9인의 작품이 조성완료되어 있습니다. ('17.10.20일 한국조경사회에서 작가 1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2018년 상반기에 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17.07.18일 현장설명회 및 워크숍을 통하여 정원설계를 완료하여 '17.08.16일 공공정원 조성을 위한 협약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작가 1인당 설계비 및 공사비 포함 5천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유지관리공사는 '17.10.31일 작가와 LH가 계약체결 예정이므로 유지관리비용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후 기반공사 사전준비를 거쳐 '17.08.28~09.27일 약 1개월간 공공정원을 조성하였고 '17.09.22일 한국조경사회 주관 제27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 사전행사로 '동탄 공공(작가)정원 작가와의 만남의 행사를 통하여 첫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 '17.10.31일 동탄신도시 입주민들을 모시고 작가정원 개장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

작품소개 및 에필로그 I

지구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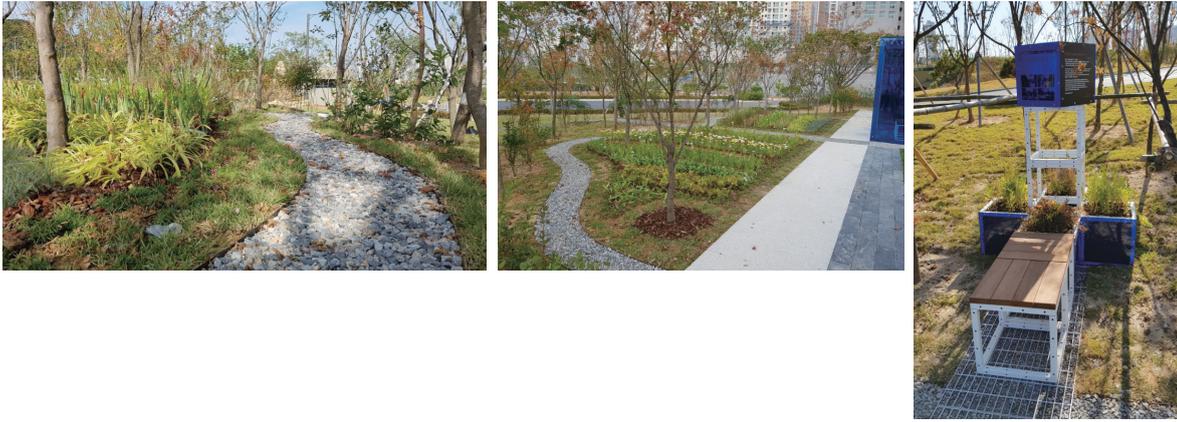
정주현 / 본회 고문
경관제작소외연 대표

작품명과 콘셉트

최근 조경신문 발행인으로 있었던 김부식 회장이 그동안 썼었던 칼럼들을 정리하며 “지구는 커다란 정원이다.”란 책을 내시고 한권을 증정해 주셨는데 그 책 제목에서 이번 작가정원의 컨셉트를 찾았습니다. 제 정원의 타이틀은 다소 거창한 ‘지구정원(Earth Garden)’인데 안내 설명판과 제안 디자인, 도판 자료 등에도 있다시피 등근 지구의 자연성(숲으로 둘러싸인 원초적 자연)과 물성(풀과 숲과 물 : 초수림)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하고 그러한 공간 안에 인간의 이용과 활동의 대표적인 집(건축)과 길(토목)을 지구에 난 생채기(상처, 흔적)로 자연 훼손의 본질적 요소를 유리큐브와 정원길로 구분하여 4가지의 정원 요소로 조성해 보았습니다.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단풍나무 숲은 계절감이 뚜렷한 지구를 뒤덮고 있던 수림대를 표현하였고, 정원의 경관적 독특한 감성을 주기위해 크기가 다양한 단풍나무 1종류의 단순한 식재로만 구성하였습니다. 정원의 중심에는 인간 주거공간의 대표적인 구조물인 집을 형상화 한 현대적인 감각의 큐브 구조체를 ‘유리와 철제’라는 하이테크한 재료로 제작, 설치하였으며 인간들이 이 땅에 활동하고 이용하며 낸 흔적과 상처인 동선(길)을 다양한 형태와 재료로 지구에 낸 부정적 자국을 “X”자형의 길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물성인 풀(꽃과 그라스류), 잔디와 물(수면)등을 나누어진 공간에 장식적으로 세팅시켜서 정원의 형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성서에 따르면 조물주는 태초에 ‘에덴동산’이란 정원을 인간 거주 공간의 원초적 장소로 마련해 주었으며 정원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는 최초의 공간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정원안내판에 있는 정원의 가치

태초에 '에덴Eden동산'이 지어졌었다...

조물주 하나님은 혼돈Chaos과 흑암Darkness속에서 이상향Utopia인 공간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정원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것을 인간의 첫번째 정주공간Human Settlement으로 주셨었다...

그러나 우리 사람Adam&Eve은 곧바로 그 공간을 잃어 버리게 된다...Lost Paradise!

그 이후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에서 내려와 억척스럽게 땀흘려 이 땅을 가꾸며 살지 않으면 안되는 종족들People이 되어 버렸다... 그래도 다행히 아름다운 지구Earth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배려받은 우리는 여전히 원초적인 '에덴의 동쪽'이라도 꿈꾼다...

초지(풀밭과 꽃밭Wiese)와 나무(숲과 덤불Wald)와 물(작은 연못Wassar)로 이루어진 동근 형태Global의 자연인 세상을 작은 정원의 모습으로 구현해 보았다... 가운데 유리 큐브Glass Cube는 지금 우리 인간Man&Women이 자연에 저항(?)하는 태도를 반면교사로 삼고자하는 오브제Objet이고 교차하는 길은 단순한 생각(?)으로 살며 이 땅에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생체기인 족적Footprint의 다양함을 상징한다..

태초엔 정원이 먼저다~^^



작품소개 및 에필로그 II

느릿느릿 걷는 구부러진 길



임춘화 / 아이디얼가든 대표

동탄2신도시 공원 내에 새로운 공원융합형 정원모델을 위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 기대가 컸다. 지난 십여 년간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조성해왔지만 많은 사람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정원이야말로 기쁨이 두배, 세배 이상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동탄, 정원을 담다’라는 주제를 들고는 신도시 이전의 동탄 옛 정취를 담아내자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시구가 있었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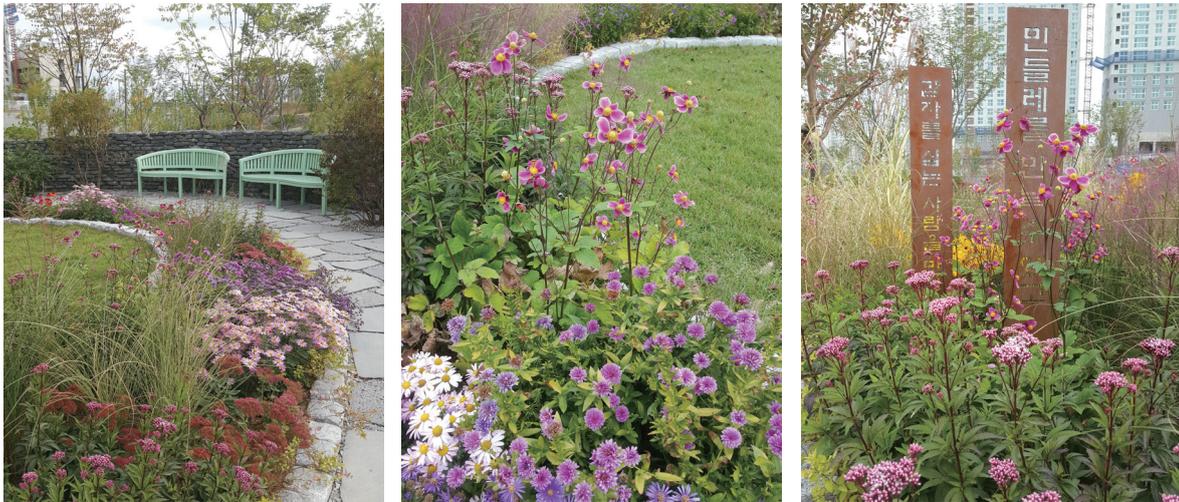
이준관 시인의 『구부러진 길』이라는 시이다. 이 시는 어릴 적 추억속 골목길의 모습과 그 따뜻한 풍취를 그대로 담고 있다. 구불 구불 구부러진 길과 세련되지 않은 정겨운 담장, 그리고 그 담장에 걸쳐 동글동글 피어나던 불두화 송이와 담장 앞에 고개를 내밀고 있던 작은 꽃, 골목 코너의 자연스러운 잡초까지.. 단숨에 추억 속의 시간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말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스쳐가는 도시의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 끝이 보이지 않는 달리기에 지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멈춤과 쉼이다. 그래서 시구처럼 별을 품고 들꽃을 품어 구불구불 구부러진 골목길을 느릿느릿 걸으며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정원을 만들고자 했다.

대상지에 처음 방문했을 때에는 황무지에 가까운 공사 현장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이곳이 하얀 도화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얀 도화지에 모두를 즐겁게 할 꽃도 나무도 그려 넣고 쉼터도 만들어 넣고 지친 마음을 달래줄 따뜻한 마음도 채워 넣을 즐거운 상상을 했다.

공사를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첫 난관은 자연배수를 의도했던 구배가 계획과 현장이 달랐다. 때문에 공사 첫날 하루는 종일 부지정리를 하는 데에 보내게 되었다. 이후 돌담을 쌓을 때에는 옛 골목길 같은 자연스러움을 위해 부정형 현무암으로 쌓다보니 예





상보다 현무암 자재가 많이 들어갔다. 예산이 빠듯했지만 완성도 있는 정원을 위해서 예상수량보다 많은 돌담을 쌓았다. 여건상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도, 전기, 화장실 등 현장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무엇보다 아쉬웠다.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교관목, 초화 식재를 하였지만 수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식물에 물을 줄 수 없었다. 임시방편으로 물탱크와 살수차를 구해서 사용해야 했다. 미리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상상했던 대로의 아름다운 정원을 완성할 수 있어 기쁘고 즐거웠다.

정원을 조성하며 가장 많은 신경을 쓴 식재의 경우, 들판의 초원같이 자연에 가까운 메도우Meadow 식재를 연출하였다. 메도우 식재란 야생의 목초지에 가까운 자연 상태 그대로의 식재를 구현하는 것으로 네덜란드의 유명한 식재 디자이너 피에트 오돌프가 선보인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개인정원에 비하여 공공공원에 관리부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찰만 이루어져도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유지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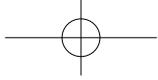
이처럼 초원 분위기의 정원을 연출하기 위하여 그라스류(흰무늬역새, 그린라이트, 모닝라이트, 핑크몰리 등)를 다양하게 이용했고, 다년생의 초화(추명국, 구절초, 큰평의비름, 골드피라밋 등)를 조화롭게 배치하여 식재하였다.

사계절 피고 지는 다년생 초화 식재를 하여 완성직후와 현재의 정원이 또 다르다. 어여쁜 꽃들이 그사이 자리를 잡아서 만개하고 있었다. 완공했을 때에는 청화속부쟁이, 큰평의비름이 큰 역할을 해주더니 이제는 가을꽃 아스타, 추명국, 골드피라밋이 정원을 빛내주고 있었다. 불과 보름 사이에 이렇게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니 1년 12달,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정원이다.

공원이 완성되어갈 때 즈음부터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사진을 찍고 정원을 즐기고 갔다. 정원을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카메라를 손에 들었다.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사진도 예쁘지만 여유를 갖고 벤치에 느긋하게 앉아 정원을 둘러보기를 추천한다. 굽이굽이 구부러진 길을 걷다보면 예쁜 꽃들을 만날 수 있고 도시에선 반가운 나비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굽이굽이 구부러진 길 끝에 통로를 두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원의 끝, 시원한 그늘 아래 벤치에서 편안한 휴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정원을 되돌아보며 정원을 만끽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같은 정원을 거닐며 정겨운 시구와 함께 지친 삶에 따스함 한 조각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작품소개 및 에필로그 Ⅲ

동탄소원



김용택 / KnL환경디자인 스튜디오 소장

가을은 축복받은 계절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다양한 정원축제가 더해져 가을이 더욱 풍성해졌다. 동탄작가정원은 동탄여울공원에 10인의 작가가 각기 150㎡ 정도로 조성했다. 필자는 경기정원박람회 이후 정원박람회에 두 번째 참가이다. 두 번 다 공원에 조성되었고 전시회 이후에 존치되는 정원이 되었다. 공원에 그대로 남겨지는 정원이니만큼 책임감과 아울러 현 시점의 작가정원 또는 박람회 정원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졌다.

정원 붐이 일면서 정원작가라는 호칭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작가라 함은 어려운 등단의 과정을 거쳐야 자격을 갖는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쉽게 작가로 불리는 것 같아 조금 씩스럽기도 하다. 쉽게 얻은 호칭인 만큼 작가로서의 의무와 권리에도 확실한 인식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정원 앞에 이름 석 자가 새겨진 것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작가로서 충실한가 하는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다. 상식으로 만드는 정원은 쉽다.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아마도 정원에 대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식으로 무장한 정원가가 되기 위해선 오랜 세월 경험이 필요하다. 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 자연에 대한 이해, 재료에 대한 섬세한 감각이 필요하다. 오랜 관찰을 통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정원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이유. 한시도 현장에서 눈을 땔 수 없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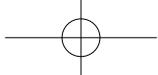
9명(1명은 중간에 사정상 그만둠)의 작가와 같이 작업하는 것은 흥미로웠다. 완성된 결과들도 좋았지만 중간에 작업에 임하는 방법들이 다양해서 서로 비교하며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다. 오랜 시간 설계에 종사하신 분들이기에 특유의 작업방식이 정원에 묻어있어 자신의 작업과 다른 부분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다. 재료의 선정에 공을 들이고 구조물의 안정성에 세심하며 식물의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해 철저하게 고민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였다. 좋은 토양조건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도 하고 며칠 밤을 새면서 열정적으로 작업하거나 야전사령관처럼 전투적으로 작업에 임하는 등 작가 여러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여준 것 같다.

“ 정원은 사소한 디테일이 모여 이뤄진다는 것,
 그 사소한 것들이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

또한 모두 설계 일에 오래 종사한 분들인 만큼 공원의 계획과 옆에 조성되는 다른 작가의 작품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사실 공원에서 시행되는 정원박람회는 공원의 계획과 조화되려면 좀 더 면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를 위해선 원 설계자와의 조율이 필요하고 정원들 배치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현 박람회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동탄작가정원 경우에는 각 작가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쓴 것처럼 보인다. 숲으로 철저히 자기정원을 위장한 작품도 있고, 지형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한 작품, 대지를 낮추어 주변경관과 독립시킨 작품 등 공원경관에 최대한 조화시키려 한 점도 눈에 보인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주제를 현란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묵묵히 정원의 물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견고한 재료로 충실히 표현하고 사소한 디테일에 더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 좋았던 것 같다. 정원은 사소한 디테일이 모여 이뤄진다는 것. 그 사소한 것들이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

함께한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작품소개 및 에필로그 IV

카루스 정원



조동범 /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카루스 정원Callus Garden 후기...

도시에는 넓은 공원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많은 수목이 이식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자연의 힘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같은 자연소재이면서도 다른 것이다. 숲에서 커다란 수목과 만나거나 하나의 씨앗으로부터 새로운 싹이 나오고 수목으로 성장하는 변화 속에서 불가사의한 자연의 어떤 힘을 잃게 된다고 해도 그곳이 인공 수림이라고 하면 느껴지는 자연의 힘은 적을 것이다. 자연을 재현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정원은 자연에 적응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변형해보려는 인간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기에 정원의 역사는 자연을 가두고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신석기 농경문화로 거슬러 올라가고 인간이 그 땅에 새긴 터무니로 의미가 확장된다. 인간은 자연을 가두기도 하고 상처를 남기기도 하며 그것을 돌보고 치유해가면서 정원으로 길들여 온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이나 실용성을 위해서만 정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자연경관 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감성이 있어서, 자연을 기억하려는 그 감성의 장치로 정원을 만들기도 한다.

카루스 정원에서, 부지를 가로지르는 선과 그 속도가 완만한 곳에 생겨난 동심원 지형은 시간 흐름 속에서 상처의 치유과정을 보여주는 유합조직 카루스callus의 표현이다.

소행성 동탄에 보내는 땅의 기억...카루스 정원은 도시로 변한 땅의 기억과 그 상처를 치유해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억의 안테나는 이곳에 있었던 숲과 개울, 논과 밭, 풀과 나무, 사람과 생물들의 소리를 과거로부터 받아 성장해가는 지금의 도시에게 전해주는 장치이다.

.... 카루스정원 설명글에서
(정확한 발음은 캘러스 가든이지만 간단하게 '카루스정원'으로 부릅니다)

대학에서 교육·연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공공정원 작가로서 참여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원 이벤트의 작품들을 보면 내심 부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가끔 심사위원으로 다니는 입장에서 작품 욕심을 부려 공모전에 내는 것도 그렇고..

막상 동탄 여울공원에 공공정원 작가로 참여할 기회를 잡게 되자, 그런 순수한 생각들보다는 ‘어떻게 시간 내에 주어진 예산으로 부끄럽지만 앓을 정도로 정원을 만들까’하는 방어적 태도가 되어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방어적이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이번 작품은 혼자 생각해봐도 초보임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주어진 면적을 그대로 쓴 작품은 거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작품제목을 “10×15”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곧이곧대로 경계치고 ‘기억’, ‘상처’, ‘치유’와 같은 말을 던져 넣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면서 역시 경험이 중요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공공정원은 정원이 놓여지는 장소의 공공성이나 맥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된 조건의 자유도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이용자의 성격이나 관리하게 될 행정기관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니, 또 다른 면에서 이중 방어적이 되기도 합니다.

동탄 여울공원의 공공정원 부지를 처음 접했을 때 주변 도시는 아직 건설 중이었고 공공정원과 이용자가 만날 때 까지 시간적 격차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공공정원을 계획하는 입장과 조성에 참여하는 작가 모두에게 앞으로 그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할 과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경관이 한동안은 안정되지 않고, 생활공간의 섬세함에 눈을 두기보다는 ‘현명한 투자처’로 땅을 보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신도시의 그 거친 땅에, ‘정원’이라는 말만으로도 묘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한 가지 더, 공공정원 사이트에 대해 특별했던 점은, 카루스정원을 디자인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떠올린 기억입니다. 30년 전쯤 부모님이, 지금 동탄 2신도시에 포함된 영천리와 중리 사이 정도에 거주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곳을 떠난 지도 20년이 더 되었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중리에 있는 만의사라는 절을 다니고 계십니다. 공공정원이 조성된 여울공원과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몇 백 미터에서 마주보는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더군요. 근처에 중리저수지가 있어서 요즘 같은 가을이면 연두색 논과 코스모스, 수크령과 억새가 한가롭던 가을 오후의 농촌풍경이 대학원생활로 거의 집에 가지 못하던 저에게는 가끔 치유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시화로 제가 보았던 과거의 풍경은 다 사라지고, 넓은 도로와 고층아파트들로 바뀌어가는 동탄2신도시에서 그 모습을 다시 떠올리기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곳들이 이곳만은 아니겠지요? 과거의 땅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겠지만, 카루스 정원은 그런 ‘기억의 터무니’의 하나일 뿐입니다. 도시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시대이지만, 적어도 상처를 표현하는 정원까지는 아니라도, 묘한 이질감의 기억들을 숨겨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작품소개 및 에필로그 V

회 원



윤영주 /
(주)디자인필드 대표이사

회원揮圓

동탄2신도시가 속해있는 화성시는 드넓은 면적과 함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특히 일제 강점기 시절 의병연합부대가 해산 된 이후에도 의병활동을 이어가며 3.1운동으로 이어질 정도로 열정적이고 뜨거운 지역이었다. 그래서일까? 현재 화성 동탄의 인구구성은 우리나라 평균연령보다도 낮고, 그 중에서도 동탄은 인구의 1/3이 30~39세로써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도시이며 제조업과 첨단 산업이 위치하는 곳이기도 하다.

“화성은 넓고 동탄은 젊다!”

화성은 드넓은 들판과 함께 어느 곳 보다도 열정적이고 치열하였다. 그리고 동탄은 어느 지역보다도 젊고 역동적이다. 따라서 본 작가는 화성의 드넓은 땅의 기개와 젊은 도시 동탄의 역동성과 열정을 정원에 담아보고자 하였다.

“드넓은 땅의 기개! 젊음의 열정과 역동성!”

흔히들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의 이미지는 대부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열정적인 민족”, “에너지가 넘치는 민족” 등으로 표현된다. 동탄은 그 표현에 맞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의 불꽃 튀는 공장, 첨단산업의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새벽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그 곳에 흐

르는 땀방울들. 마치 한 번에 모든 그림을 그려내듯 거침없고 빠르고 급한 일상들이다.

정원의 공간 이미지 “일필휘지”

정원의 공간 이미지는 일필휘지이다. 동탄의 거침없고 빠르며 급한 일상들의 모습은 마치 어느 선비가 자신의 몸체만한 붓을 잡고 바닥에 써내려가는 ‘일필휘지’의 역동적 이미지를 닮아 있다. 그 궤적이 그리는 힘과 역동성을 담아내기 위해 정원의 입구인 휘문揮門은 붓의 시작을 알리는 원형으로 제작되었고, 동선인 휘로揮路는 바닥에 그려낸 일필휘지 그 자체이다. 또한 휴게시설인 벤치와 파고라 휘정揮亭의 디자인 또한 한 붓의 휘揮의 모습을 닮아 내었다.

정원의 공간 구성 “시간의 흐름, 적층 그리고 인생”

일필휘지는 우리네 인생과도 결부된다. 시간의 흐름, 적층, 그 흐름과 적층에 따라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써 내려가며 그 발자취가 울랐던지, 마음에 들었던지, 아름다웠던지, 그렇지 않았던지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보낸다. 다만 되돌아볼 뿐이다. 시간의 적층을 상징하는 철판석으로 켜켜이 쌓은 돌담과 함께 휘문揮門을 통해 정원에 들어가면 가장 처음 마주하는 동선인 휘로揮路를 만나게 된다. 좁게는 20cm에서 넓게는 120cm의 너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마저도 여러 갈래의 길로 나뉘어 있다. 다소 불편한 동선일 수는 있으나 정원은 공원의 그 것과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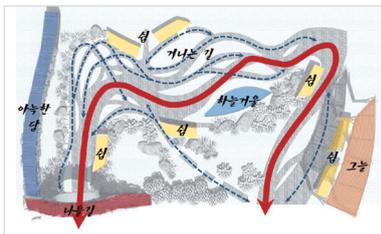




이 정원은 멈춰서고 자세히 들여다보며 천천히 걷고 생각하는 공간이다. 빠르고 급한 일상을 사는 동탄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행위들이었기에 느리게 가는 시간의 정원을 만들거자 하였다. 정원 곳곳에 켜켜이 세워놓은 철판석은 자연석을 대신하여 돌담과 동일한 경관과 시간의 적응 개념을 형성하는 오브제로 배치하고 사이사이에 들뜸 식재를 하였다.

정원 내부를 거닐다 보면 정원 중앙에 배치된 거울못을 만나게 된다. 거울못은 하늘과 자신의 모습을 담는 거울로써 인생 중반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원의 끝자락에 위치한 그늘쉼터인 휘정亭은 인생 마지막에 각자의 빠르고 급했던 일상들을 회상하며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행복한 공간에서의 심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렇기에 정원 식재 표현에 있어서도 휘로 槲栂 초입부는 대나무와 관중, 돌단풍 등으로 녹색이 있는 태초의 경관을 만들거자 하였고, 중반으로 진입할수록 층꽃, 구절초, 향등골, 청하쑥부쟁이, 미스김라일락, 고평나무, 나무수국, 수국 라임라이트, 해국, 옥잠화 등 다양한 꽃들과 나무들이 어우러진 향기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정원 곳곳에 설치된 안개분수는 식재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적 측면에서 설치한 것이기도 하지만 안개 낀 듯 아련하고 막연한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는 분위기 메이커로서도 더할 나위 없을 듯하다.



동그란 대문 지나 아늑한 담을 따라
갈래갈래 여러 갈래길 천천히 휘 돌아 잠시 쉬어가면
땅에 비추인 검은 하늘 내 마음의 거울삼아
층층이 쌓인 나의 지난날들 돌아보고
어여쁜 꽃들 앞들 나무들 복숭아桃花 나무가 있는
이곳이
내 시간을 멈춘 무릉도원

삶을 담아내는 정원, 휘원 揮園

어쩌면 나는 이번 동탄 작가정원을 통해 동탄의 이미지를 그려넣으며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의 생각과 이미지가 투영되는 결과물로서 작가의 이야기 또한 이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리라. 빠르고 급하게 지나가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한 채 흘러가는 삶. 그러한 삶을 정원에 옮겨놓고 천천히 거닐며, 되돌아보며, 쉬고, 위로받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이번 동탄 작가정원과 함께해 주신 내관계자분들과 한국조경사회, 그리고 여러 작가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동탄 주민들에게 휘원이 작지만 행복한 삶의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작품소개 및 에필로그 VI

동탄이 꾸는 꿈, 몽탄원



홍광표 / 동국대학교 교수
(사)한국경원디자인학회 회장



동탄 2신도시 7호 공원에 조성하게 될 작가정원의 초청작가로 선정되면서 며칠 동안 동탄에 조성될 정원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다. 내가 꿈속에서 본 정원의 모습은 한국의 전통정원을 새로운 개념으로 해석한 것이었다. 그 꿈은 내가 곧 꿈이기도 하지만, 동탄사람들이 곧 꿈이기도 하며, 정원을 만들게 될 땅이 곧 꿈일 수도 있다. 꿈에서 깬 나는 정원의 이름을 '몽탄원(夢灘園)'이라 명명하고, 꿈속에서 본 풍경을 정원에 담기 시작하였다. 다행히도 아직 기억이 있어 그때 꾸었던 정원의 풍경을 스케치해본다.

몽탄원에는 상상의 영지가 있고 꿈결에 유락하는 삼선도가 있으며, 물속에서 꽃이 피는 수계가 있다. 영지 둘레의 누마루에 앉아 동탄사람들은 꿈을 꾸다. 그리고 신선이 된다.

영지는 동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든 못이다. 이 못에는 사시사철 꽃과 나무가 모습을 바꾸며 비치고, 삼선도가 뿌리를 담고 있다. 동탄사람들은 영지를 보며 신선들이 사는 신선계를 꿈꾼다.

삼선도는 동탄에서 오랜 시간 함께해온 세 산, 봉래·영주·방장산을 의미한다. 이 삼선도는 지금 동탄에 지어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세 섬은 정원을 찾는 이들을 반기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걸어온다.

수계가 말로 지금까지 현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꿈속에서 만난 또 다른 상상력의 산물이다. 우리의 옛 정원에서 볼 수 있었던 화계를 새로운 개념으로 해석하고, 현대적 재료와 작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수계이다. 수계는 몽탄원을 찾는 이들에게 소리와 색과 향으로 풍경을 전달한다. 수계에는 물이 흐르고, 흐르는 물과 함께 피고 지는 꽃이 있다. 물이 만들어낸 화계, 그것이 곧 수계안 것이다.

영지를 둘러싸고 있는 누마루는 정자의 현대적 해석이다. 여기에 앉으면 영지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다. 몽탄원에 가면, 누마루에 앉아 영지를 바라보며 꿈을 꾸는 동탄사람들이 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잠시 떠나 이곳에 앉아 무념무상에 든 동탄사람들의 모습에서 신선의 경지를 볼 수 있다.

이 정원은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은 명징한 모습으로 만들어진다. 본래부터 이 자리에 존재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담백하다. 소재는 자연적이면서 현대적 물성을 보이는 콘크리트와 유리, 철을 사용해서 진화된 정원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였다. 꿈속에서 본 몽탄원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모습은 다음과 같다.

영지는 기존 지형에서 1.0m를 파낸 다음 하부 30cm에는 중

은 흙과 부엽토를 섞어 양호한 식생기반을 마련한 후 그곳에 찾아보기 어려운 진귀한 꽃들을 100종 이상 심어 마치 신세계에서 영지에 비친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이 조성하였다.

삼선도는 돌과 유리 그리고 철을 사용하였다. 철은 징크를, 유리는 유리블럭을, 돌은 상주석을 썼는데, 하나는 세우고 (2.1×0.8×0.8m), 다른 하나는 중간 정도의 높이로 세우며 (1.7×0.6×0.6m), 또 다른 하나는 낮게 세워(1.0×0.4×0.4), 부등변 삼각형의 배치가 되도록 하였다.

수계는 부지 후면부에 3단으로 조성하며, 콘크리트 구체를 쳐서 기반을 마련하고, 그 위에 수조를 놓아 완성하였다. 수계의 규모는 한단의 길이가 6m이고, 폭은 70cm로 하였다. 각 단에는 벤치플룸관을 가져와 수조로 활용하였는데, 플룸관은 길이 2m, 높이 50cm되는 것 9개를 조합하여 수조의 쓰임새를 갖도록 하였다. 수계 하부에는 폭 1.2m에 깊이 70cm의 저수조를 만들고 여기에 고인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장치하였으며, 야간에는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여 적멸한 분위기를 갖도록 하였다. 이렇게 만든 수계에서는 연꽃과 부처꽃, 창포가 꽃을 피우고, 물양귀비와 물수선화가 모양을 내어 피어나며 각종 수생식물들이 소리와 색과 향으로 신선함을 이루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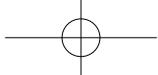
누마루는 영지주변으로 돌아가며 원목을 짜서 만드는데 폭은 90cm로 하여 사람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곳에 앉아서 영지를 보면, 물 위에 비친 꽃 그림자를 볼 수 있으니 비온 뒤 소쇄한 날 한번쯤은 이곳을 찾아 꽃 그림자를 보며, 자아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원의 경계가 되는 담장은 철망이라는 현대적 물성을 통해 한국성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담장의 높이는 1m 정도로 하여 경계가 되기도 하지만 시각적으로는 내부가 쉽게 보이도록 하였다. 담장에는 으아리, 사위질빵, 할미밀망, 붉은인동, 흰인동 등 덩굴식물을 심어 초록의 취병이 되도록 하였다.

원로는 누마루 후면에 1.5m 폭으로 만들었다. 원로에는 포장면 사이에 잔디를 심어 정원으로서의 이미지를 연출하였으며, 수계 전면부의 작은 마당과는 재료와 포장법을 달리하여 공간성을 달리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곳에 심은 나무와 꽃은 다음과 같다.
 교목으로 소나무 1주, 쪽동백 2주, 단풍나무 1주, 배롱나무 1주, 산수유 1주, 수수꽃다리 3주, 감나무 1주와 관목으로 매실나무 1주, 산수국 7주, 백철죽 20주, 말발도리 20주, 애기말발도리 5주, 꽃댕강 5주, 조팝나무 1주
 초화류는 투구꽃, 산파, 두메부추, 산부추, 너도부추, 처녀치마, 금꿩의 다리, 삽주, 큰꿩의비름, 자주꿩의비름, 리아트리스, 해국, 구절초, 흰구절초, 한라구절초, 거북머리, 산비장이, 공취, 한라개승마, 눈개승마, 할미꽃, 무늬동글레, 호랑이바위솔, 정선바위솔, 푸른옥바위솔, 와송, 둥근바위솔, 세잎양지꽃, 땅채송화, 노루귀, 범부채, 섬초롱꽃, 돌나물, 옥잠난초, 맥문동, 속새, 옥잠화, 주걱비비추, 일월비비추, 좀비비추, 꿀풀, 꼬리풀(블루, 화이트), 왜성꼬리풀, 상록패랭이, 상록애기기린초, 애기기린초, 바위취, 독일붓꽃, 휴게라, 용담, 털머위, 동의나물, 노루오줌, 아스타, 은대난초, 부처손, 개부처손, 알프스민들레, 왜솜다리, 벌개미취, 애기석위, 은쑥, 둥근이질풀, 노랑속근코스모스, 참나리, 원추리, 우산나물, 아네모네, 붓꽃, 노랑잎왜성조팝, 백리향, 기린초, 클레마티스, 상사화, 리틀제브라, 꽃도라지, 자엽꿩의비름, 코레우리 모닝스타, 하늘용담, 층꽃
 덩굴은 으아리, 사위질빵, 붉은인동, 흰인동, 수생식물은 부처꽃, 속새, 물수선화, 수련, 연, 시페루스, 물수세미, 벚풀, 부들, 창포, 물양귀비, 물싸리, 물칸나, 무늬물칸나, 마름, 물옥잠, 물배추,
 양치류는 고란초, 삼지구엽초, 고사리, 고비, 관중, 참취
 사초류는 대사초골드라이트, 흰줄무늬대사초, 레드루스터, 루시우스, 포니테일





작품소개 및 에필로그 VII

신작로의 꿈



이재연 / 본회 상임이사
조경디자인 린(주) 대표이사

동탄이 꾸는 꿈의 시작

몽실몽실 살진 옛 길과 서넛 잔광의 물비늘처럼
반짝이는 동탄의 발 들녘
그 벌판 위로 새 길이 드러누웠다.
오래 된 기억의 풍경을 베어낸 작로 위에
아련한 체온을 얹혀주고 싶다.
신작로는 문명을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역사이다.
시작은 언제나 길이 없었다. ¹⁾
허나, 꿈을 가진 도시는 어디로든 길을 낼 수 있다.
나무들의 계절처럼 툭툭 불거져 나오는 새 길처럼 ²⁾
꿈을 위한 두근거림으로

1) 박무웅 시인의 “신작로” 발췌 2) 박무웅 시인의 “신작로” 발췌

엄밀히 구분하자면, 공원과 정원은 태생부터 성격이 다르다. 시민에게 개방되어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장소가 공원이라면, 정원은 외부로부터의 자기보호를 위해 울타리로 막으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공원 안에서의 정원은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 된다. 정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우선 공간이 크지 않은 철저히 휴먼스케일에 의존 한다면, 그에 반해 공원은 다수인을 위한 큰 공간의 집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공원 안에 있으므로 공공적 성격을 갖는게 우선인 이 작은 크기의 정원은 그 규모가 적정한가의 의문을 담고 있으면서 공공을 위한 개방성, 관리적 효율성, 그리고 정원 고유의 디테일과 휴먼스케일등이 서로 상충하며 답을 내놓기를 꺼려한다. 한시적 전시작품이라면 나름의 실험적인 멋 조경에 힘을 쏟겠지만, 영구적으로 전시가 아닌 이용의 장소라면 문제는 또 달라진다. 고민 끝에 필자는 열려있는 공원의 성격을 유지하고 휴먼스케일의 정원식재 방식을 공존하도록 하였다. 명쾌하게 공간의 성격을 규명 짓지 못한 일종의 타협인 것 같아 부끄럽다. 그래도 다음처럼 스스로 위로해 본다.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설계에 옳고 그림이 있으나, 그저 오가는 사람들에게 늘 편안한 공간으로,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이 곳에 또 오고 싶다' 생각하게 하면 될 일인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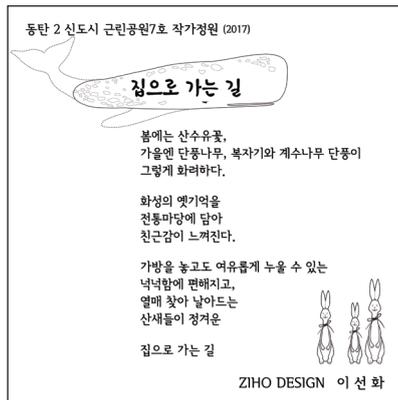
마을 구석에 덩그러니 남겨진 허물어진 집터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마구 자라났다. 새로운 꿈 뒤에는 남은 여백의 흔적들이 애잔하다.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역동에 자연은 묵묵히 회귀를 꿈꾸고 있었나보다.

어릴 적 신작로의 끝이 궁금했다. 어디까지 가는 길일까?
처음에 덜컹이며 먼지 나던 그 길 위로 퀴퀴한 아스팔트가 뜨겁게 깔리면 동네 어른들이 모두 나와 '세상 참 좋아졌다. 좋아졌어.' 하시며 고시레를 외치며 차가운 막걸리 한잔을 뜨거운 그 길 위로 뿌렸다. 먼 길 끝에는 신기루 같은 불빛이 어찌다가 동네를 찾는 넥타이를 질 끈 동여맨 사내들이 셔류 멩치와 카메라를 메고는 동네를 둘러보곤 했다. 그 길 위로 도시라는 거대한 마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



작품소개 및 에필로그 VIII

집으로 가는 길



안내판



이선화 / 본회 상임이사
지호디자인 대표

공원에서의 정원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나는 공원 이용자가 피크닉 가방과 담요, 책 등 여러 가지 짐들을 풀어놓거나, 행태에 있어서도 드러눕는 등의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하고, 여러 명이 동시에 이용해도 괜찮은 규모가 다소 큰 휴게시설물을 생각했다.

‘무더위에 나무들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며 8월 31일 ‘집으로 가는 길’ 여름공사는 시작 되었다.

주어진 대상지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편한 쉼, 휴게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보리라 생각했다. 또한 화성시에서 제시한 주제 가운데 한국의 전통과 활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최근 정원의 경향이 많은 정원요소를 보여주고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의 심을 위한 정원은 정보를 덜어내고 여백을 두어 여유롭게 만들고자 하였다. 여기에 정원 요소들의 질서,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움 그리고 우리에게 푸근한 느낌을 주는 마사토 포장의 ‘집으로 가는 길’을 나의 지인들은 편안한 정원이라고 한다.



여러명이 동시에 이용가능하고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한 여유로운 규모의 휴게시설물



구조물과 관목 등 정원요소의 황선이 질서 유지

9월2일 부지정리를 하면서 주변 교량을 가려주고 먼 산과 이어주려는 의도에서 계획된 마운딩을 위해 다른 작가의 남은 흙을 받기로 했는데 경쟁자가 나타났다. 어느 날 회의를 마치고 현장에 갔더니 우리 마운딩이 생각보다 높아졌다. 현장 김 소장님이 옆에서 마운딩을 높이 올리니 덩달아 올라가더라는... ㅎㅎ 우리사이트가 시작점 혹은 끝점이므로 낮게 고치고 거기에 역새와 수크령을 식재하여 주변과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경관을 연출하였다. 사실 공사기간동안 작가들 사이에 은근히 경쟁심도 있었던 것 같다.



마운딩의 높이를 낮추고 수크령과 억새식재



하자에 대비한 복자기 4그루가 인접녹지에서 축 형성

9월4일 일정보다 하루 당겨서 교목 식재가 시작되었다. 굴취하고 바로 심으면 활착률이 높지 않겠냐는 나의 제안에 말씀도 없이 일정을 당겨서 들어왔다. 나무를 잘 살리기 위해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 발생!!

우리는 규격이 큰 나무들이 많아서 일단 그들의 위치를 잡아 놓고 터파기량이 많지 않은 시설물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는 판단 하에 식재공사를 구조물 보다 먼저 했다. 일찍부터 심었던 복자기는 9월20일 즈음 새잎을 보여주며 인사를 했다. 마주보며 큰 축을 형성하는 녹지에도 네그루의 복자기(하자발생에 대비한 수목)를 식재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아름다운 경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제일 큰 단풍나무부터 식재



자연스럽게 보이는 노랑 속근코스모스



구조물보다 먼저 교목식재

경관석원은 당초 부지 전체에 자연석 세덩이만 계획했었는데 큰 자연석 하나 혹은 두세 덩이의 자연석을 배치하고 주변에 받침돌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구성력이 좀 더 있는 경관석원

으로 변경했다.

당초 고래이미지의 자연석은 녹색이끼 자국이 선명해서 노랑색의 하늘하늘한 초화가 어울릴 것 같아 애기똥풀을 생각했었다. 가장 자연스러운 이미지-자연에 흔한 것이 경관석원에 들어와 얼마나 귀하게 대접받으며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애기똥풀은 포트판매가 되고 있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의 만류로 결국 속근 코스모스로 결정했는데 실제로 보는 이들은 노랑색 꽃의 하늘거리는 이미지가 자연 풀밭 같아 편안해 보인다고 했다.

휴게시설물은 게이트 월과 동일 소재의 비교적 큰 블록제품을 이용했다. 공원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하여 여름철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내구성이 좋아서 유지관리도 용이하나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시공 시 오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밖에 디딤석포장, 안내판, 명판 등의 공정이 있었지만 시공과정 중에 100% 만족은 없는 것 같다. 그들이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거기에 멈춰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많이 애써준 큰 촌자 김소장님 고맙소! 다급하고 중요한 순간에도 신경써준 강차준 고맙다! 한여름 동안 하늘아래에서 땀별 받아가며 같이 작업한 작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

시간이 흐를수록 아름다워질 '집으로 가는 길'을 기대하며---

세·번·째

회원사 탐방 | 서인조경(주)

박영준 / 본회 설계위원장
(주)서인조경 대표이사

서인조경은..

1975년 서인환경으로 시작하여 2009년 설계분야만 별도로 분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히 조경설계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설계만 전념하여, 제2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경설계가 힘든 일이라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새로운 디자인의 창출에 대한 욕심과 자부심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직원간의 팀워크를 중시하며 개인의 능력 또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상사부터 직원까지 격이 없이 함께 일하는 문화를 갖습니다. 연 2회 워크숍을 진행하며 다양한 스포츠나 문화활동을 하기도 하고 격주 수요일마다 다과있는 영화감상, 문화공간 및 사례지 답사 등으로 즐기는 분위기속에서 소통토록 합니다.



[서인조경 하계워크숍 2017.5]



서인조경(주)

주요구성원

대표이사 박영준

서울시립대와 한양대 환경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토문엔지니어링, 동심원조경, 피엠디조경과 기술사사무소 렛에서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설계실에서 근무하며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느슨하게 생활 속의 조경을 모토로 좋은 작품들에 힘을 보탭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광명역사,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산시 실내체육관 및 위례지구 제3공구 택지와 고덕강일 택지설계 등 좋은 팀원들과 많은 작품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문 여환주

건국대와 상명대 대학원에서 박사를 마치고 송파구, 강동구청 공원녹지과장을 마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의 공원설계를 위해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장 이종석

한경대학교와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신화컨설팅에 근무하며 설계를 마주하는 자세와 실무에 대해 접하고 현재 서인조경에서 공동주택 계획, 턴키, 기술제안, 개발사업 등의 대외 업무를 수행하며 프로젝트에 적합한 디자인에 대해 오늘도 야근합니다.

서인조경 주요연혁

서인조경은 1975년 서인환경으로 시작하여 1994년 (주)서인조경으로 개칭하였으며 2009년 설계분야 분리설립 이후 지금까지 조경설계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인조경 주요 수행 프로젝트

2012년 진행된 고덕강일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현상설계에서 “도시에 스며든 나눔의 풍경” Osmotic Parks라는 테마를 가지고 기존마을사람들의 옛추억과 신도시미래에능동적 균형을 이루고자 삼투성을 지닌 공원을 제안하여 당선되어 실제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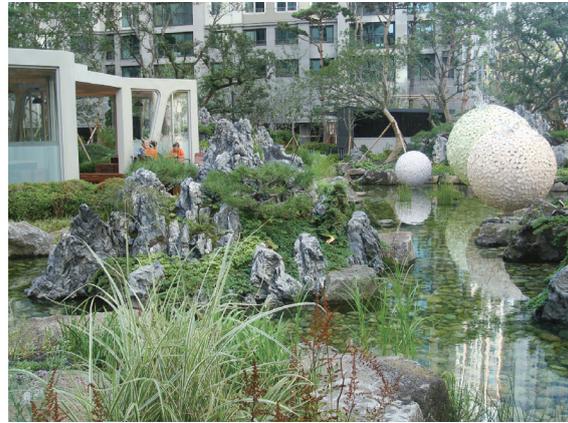


[고덕강일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현상 및 실시설계 2012]

그와 함께 진행한 위례택지개발사업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에서는 우리 삶에 잊혀진 고유의 한국적 정서와 역사를 담은 산,하천,보금자리가 어루어진 친환경 소통공간을 조성하고자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를 테마로 조경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2012]



[가재울뉴타운4구역 조경설계 2015]

아파트 조경설계로는 2015년에 준공한 가재울 뉴타운4구역 아파트 조경설계에서 전원의 자연과 도시의 편리함이 공존하는 가재울 ‘Garden City’를 테마로 정원구성 요소를 아파트 조경에 입힘으로서 다양한 색상과 경관을 경험할 수 있는 정원이 있는 아파트 설계를 하였으며

2016년에 진행한 대구 수성구 황금동 민간주택 특화설계는 Associate City with Green을 컨셉으로 무확산 협곡에 위치한 자연적 입지조건(바람, 빛)을 고려하고 도시의 간결하고 명확한 선형을 도입하여 직선형의 수공간과 그사이에 클러스터 공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도시와 자연을 결부짓는 현대적 감성의 단지계획을 하였습니다.



[대구 황금동 재건축아파트 2016]

건축분야와 함께한 프로젝트로 2009년에 진행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공사에서는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공간조성과 부산앞바다와 연계한 수공간을 조성하여 해양문화를 담은 부산의 새로운 대廳, 바다로 열려진 복합문화공간 “Ocean Platform”을 진행하였으며



[국립해양박물관 건립공사 BTL 2009]



[진천푸른물센터 BTL 및 실시설계 2014]

2014년 진행한 진천푸른물센터에서는 최근 진행중인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과 함께 상부 주민친화체육공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서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왕숙천 수변공원과 이어지는 체육공원 조경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주요 사업분야로는 택지개발사업과 가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계, 재정비 사업 및 공동주택의 단지설계, 하천, 도로 등의 경관설계와 LIM 등 빠르게 변화하는 설계시장에 맞는 다양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성은 경영본부와 3개파트의 설계실과 경관TF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인원 약 20명의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인조경의 디자인 철학

Simple (Minimalism)

단순 명료로 본질의 핵심을 흐리지 않게 하며

Morden (Formative ideas)

견고한 이미지를 가짐으로 조형적인 구상을 띄게 하고

Metaphysical scape

형이상학적인 접근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관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추구합니다.

직원들의 한마디

최수정 실장 : 조경설계가로서의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곳

오현석 실장 : 서인조경은 스릴이다.

신명준 차장 :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곳

허재 대리 : 꿈과 희망을 주는 회사

박성우 사원 :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움을 주는 회사

박소희 사원 : 좋은 사람들은 만나면서 일의 즐거움을 알게 된 곳

김미정 대리 :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내는 곳

최소영 사원 : 끊임없는 배움이 있는 곳

김태관 사원 : 학교처럼 배울 수 있는 곳

임수연 사원 : 늘 새로움을 주는 곳

최은실 대리 : 고마운 곳

전성연 사원 : 즐거움과 배움이 있는 곳



[서인조경 동계워크샵 2016.12]

전화 | 02-563-5088 팩스 | 02-563-5087

주소 | 서울 송파구 총민로 10 8층 S-15호(가든파이브 빌)

대표 | 박영준

이메일 | seoinnla@chol.com

연재코너 | 조경진흥법 다루기는 집필자님의 개인사정으로 한 회 쉽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조경이야기



주신하 / 본회 상임이사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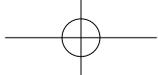
80년대 학번 vs 2010년대 학번

벌써 2017년이 다 지나갑니다. 내년 2018년은 개인적으로는 조경학과를 입학한지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들의 조경이야기'라는 제목을 빌어 30년 전 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조경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경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조경은 2지망이었는데 입학 후에 슬슬 재미를 붙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동기들도 전공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입학한 친구들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점수에 맞춰 대학을 가는 분위기였으니까요. 하여간 당시에 재수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변 분들이 조언(인지 참견인지는 모르겠지만)을 해 주십니다. 조경, 그거 앞으로 전망이 좋을거라고. '전망 좋은 조경',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지요? 그 말을 완전히 믿은 건 아니지만 재수는 확실히 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간혹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조명학과? 그거 건물 외부에 불 키는 거 말하는 거니? 앞으로 그런 조명도 중요할거야, '그거 고래 잡는 거 배우는 거니?' 요즘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아마 없겠지만, 당시만 해도 조경이 좀 낯설고 어색한, 그렇지만 막연한 희망을 가진 그런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전공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빼먹기도 일수고(사실 교수님들도 수업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수선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또는 대학의 낭만을 위해서 공부보다는 다른 곳에 신경을 썼던 경우도 많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학생이란 신분이 정말 큰 특권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졸업 후에 사회진출에 대한 고민이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80년대부터 지속된 경제성장의 덕으로 건설분야에는 늘 기회가 많았습니다. 건축, 조경 분야는 늘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조경분야에 대한 위상이 문제였지(당시에는 학생으로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요즘 저는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이라는 감투를 쓰고 대학에 지원한 고등학생들을 만납니다. 학생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입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록들이 다 글자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요즘 고등학생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대학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학생생활기록부에는 재학기간 동안 읽은 책들도 꼼꼼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물론이고 간단한 책의 내용, 상세히 적힌 기록부에는 그런 책을 읽고 학생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는지 이야기까지 적힌 것들도 있습니다. 조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기록부에는 '타샤 튜더의 정원' 같은 비교적 대중적인 책도 있고 '텍스트로 만나는 조경'과 같은 조경 입문서도 눈에 띕니다. 좀 무리(?)를 한 학생들의 기록부에는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같은 어려운 책도 간혹 있습니다. 요즘 조경학과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 책은 읽어야해야 하는 거지요.

어렵게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높은 등록금에 대한 걱정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늘 좌불안석입니다. 학교 성적도 잘 관리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병행해야 합니다. 영어점수도 받아 놓아야 하고, 자격증도 따야 하니



다. 여학연수나 배낭여행도 일종의 스펙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저런 이유로 휴학을 하게 되면 되면 나중에 취업에 불이익은 없을까 고민도 됩니다. 졸업 후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새로운 구직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입학 후에도 여전히 뭔가를 계속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라는 충고는 학생들에게는 사치스러운 것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 정말 참 안쓰럽습니다.

하늘에 별따기, 조경기사 자격증

조경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모두 조경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아니지요. 몇몇은 조경분야로, 또 몇몇은 조경과 관련이 있는 인접 분야로, 또 다른 몇몇은 조경이 아닌 다른 분야로 진출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조경분야로 진출할까요? 물론 입학 때부터 조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관심이 많은 분야는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깊이가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은 그런 학생들의 수는 다수는 아닙니다. 의외로 조경분야로 진출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전공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공부하면서 관심이 늘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막연한 호기심이 관심으로 이어지다가 진출분야로 연결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칭찬은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거나 공모전에 출품했다가 상이라도 받게 되면, 그 학생은 이 분야가 나한테 잘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기사자격증 취득도 이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던 과목만으로는 내가 조경에 대해서 뭔가 알아가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갖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이 정도 지식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인 거죠. 상황이 이러니 기사 자격증은 학생들에게 큰 자심감이 됩니다. 국가에서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공인해 준 셈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조경기사 시험은 '조경고시'라고 할 만큼 어렵습니다. 혹시 최근 조경기사 합격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점점 떨어지는 추세인데 2014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6.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61%가 아니라 6.1%입니다. 30명이 있는 학과에서 모든 학생이 응시했을 때 2명이 안 되는 정도만 합격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종목 합격률이 20~30% 정도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조경학과 학과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조경시험이 학생들의 조경분야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이었지요. 분명히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사시험의 과목 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조경분야가 폭이 넓어 공부할 양이 많은데 6개 과목은 너무 큰 부담입니다. 현재 6개 과목으로 구성된 필기시험을 5개 정도로, 더 가능하다면 4개 정도로 줄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분야 교수님과 전문가분들이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결과로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현실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과목별 출제범위를 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학회에서 발간한 교재와 과목별로 몇 개씩의 부교재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조경기사 자격증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생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응시한 학생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조경기사를 응시하는 학생들이 동의보감에 나오는 식물의 이름을 외워야 하는 건가요? 출제나 문제검토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험을 관리하시는 분들까지 이런 상황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최근 자리 잡아가고 있는 NCS 체계를 자격시험과 연동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암기위주의 기사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학생들에게 조경분야로 잘 인도하는 것은 기성세대에게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사자격증은 졸업 후 조경분야로 진출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경계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경분야에 인재가 부족하다는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선 조경기사 시험부터 개선하는데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기사시험에 대한 푸념이 길어졌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 알리기가 우리가 가장 크게 힘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조경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경 알리기에 나서야 할 때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조경은 40년 째 계속 '전망 좋은' 상황입니다. 전망이 좋다는 건 다행이긴 하지만, 40년 째 유망주라는 건 어째 좀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그 동안 좋은 경기에만 편승해서 경쟁력을 못 갖춘 것은 아닌지, 새로운 인재발굴을 위한 노력을 못한 것은 아닌지, 사회적인 변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최근 조경분야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조경분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설계비나 공사비 책정의 문제, 정책의 우선권의 문제, 인접분야와의 갈등의 문제 등. 가깝게는 발주처가 생각하는 조경분야의 위상, 크게는 일반 대중들의 조경에 대한 인식이 우리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저는 조경 알리기가 우리가 가장 크게 힘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조경계 내부에서만 이야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조경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경교육도 필요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경 알리기 작업도 중요하겠지요. 그런 '교육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겠어?'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요. 즉각적인 변화와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끊임없이 조경을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40년 전부터 꾸준히 이런 일이 진행되었더라면 지금쯤은 많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이 없다면 10년, 20년, 40년 후에도 여전히 '전망만 좋은' 조경분야로 남아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

• 본회소식 • 2017 •

제27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부제:조경인 한마음 대축제)

- 일시: 2017년 9월 22일(금), 10:30~18:00
- 장소: LH 동탄사업본부 옆 근린공원
- 주관: 본회 체육복지위원회
- 후원: 공지사항 참조
- 참석인원: 630여명
- 참가업체: 75개사
- 동시진행행사:
 - 동탄 공공(작가)정원 현장답사
 - 신제품 전시 및 홍보 (주관: 자재 개발위원회)

우리팀	나라팀	대한팀	민국팀	조경팀	만세팀
이승용, 박영준, 오두환	황용득, 최원만, 윤수희	조운자, 이동석	박기숙, 이형철	최종필, 제상호, 정재욱	김철홍, 양재호
공공기관조경협의회/LH	건설사조경협의회/대우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CA조경기술사사무소	(주)가림환경개발	건설사조경협의회/GS
공공기관조경협의회/SH	그린프리즘(주)	(주)네이코스 엔지니어링	(주)KG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건화	건설사조경협의회/ 금호
공공기관조경협의회 /인천도시공사	그린컬처조경 설계사무소	(주)대지개발	(주)도시와숲	(주)세민조경	(주)그룩한어소시 에이트
공공기관조경협의회 /한국도로공사	(주)동심원 조경기술사사무소	(주)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주)디자인파크개발	(주)스페이스톡	(주)도화엔지니어링
공공기관조경협의회 /한국수자원공사	미주강화(주)	동부엔지니어링(주)	라펜트	신림산업	동탄현장팀/LH
(주)기술사사무소 예당	(주)신화컨설팅	동해종합기술공사	(주)송림원	아세아환경조경	동탄현장팀/남해
(주)다인산업개발	에스엘디자인	(주)수성엔지니어링	아이세상	(주)아르디온	동탄현장팀/덕동
데오스웍스	(주)이노블록	(주)우리엔디자인펌	(주)예건	장수산업(주)	동탄현장팀/송산
보현석재(주)	조경사업자협동조합 봄	(주)유신	(주)원앤티에스	조경설계 동산	동탄현장팀/수림
서인조경(주)	(주)조경세계	(주)인터조경기술사사무소	(주)이산	(주)천마이앤씨	동탄현장팀/중흥
(주)어소시에이츠 엘작	태광테크(주)	조경디자인 린(주)	한림로텍스(주)	케이웍스디자인	동탄현장팀/청도
청우펀스테이션	(주)플레이잼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주)한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동탄현장팀/화산
태흥산업	강릉원주대학교			(주)한국종합기술	키그린(주)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주)한국조경신문
					(주)해안건축
					강릉원주대학교

• 수상내역

- 1등팀: 민국팀(캠핑텐트 100개)
- 2등팀: 우리팀(캠핑체어 100세트)
- 게임별 우승상: 에어베드 60개, 여행용 파우치 50개, 상품권 12장(1만원·3만원권)
- 게임아이디어 응모상: 상품권 2장(5만원권)
- 행운상: 블루투스스피커보조배터리 25세트
- 기념품: 손목아대 700세트

• 본회소식 • 2017 •



• 본회소식 • 2017 •

2017 제14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시상식 및 초대작가전

- 공모주제: 광장의 재발견 Reinvention of Plaza
- 시상식: 2017년 8월 23일(수), 13:30~16:00
- 전시기간: 2017년 8월 23일(수)~25일(금)
- 장소: 문화역서울 284 RTO관
- 주최: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
(재)늘푸른, 월간 환경과조경
- 후원: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울조회, 한국조경설계업협회



나는 조경가다 시즌5(부제: 당신의 정원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 일시: 2017년 9월 26일(화)
- 장소: 2017서울정원박람회장 가든센터
- 주최: (사)한국조경사회, 서울특별시
- 주관: 본회 설계위원회
 - ▷ 참여작가소개(5)
 - 강연주 ((주)우리엔디자인펌 대표)
 - 김수연 ((주)인터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 남은희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대표)
 - 서미경 ((주)해안건축 조경설계실 수석)
 - 최혜영 (성균관대학교 조경학 조교수)
 - ▷ 사회자소개(2)
 - 안세현 (가원조경설계사무소 대표)
 - 박은영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 내용: 2017 서울정원박람회 기간 중, 「나는 조경가다 시즌5」행사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금년에는 여성조경가 특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4회 아름다운 조경·정원사진 공모전/시상식 및 전시회

[공모전]

- 작품접수기간: 2017년 9월 4일(월)~9월11일(월), 18:00
- 수상작발표: 2017년 9월 15일(목)
- 상세심사결과: 대상1명, 금상1명, 은상3명, 동상5명, 입선8명
- 심사위원: 정진숙(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최종필(본회 회장), 최원만(본회 조경연합추진연구소 소장), 정대현((주)한국조경신문 대표), 유청오((주)환경과조경 사진팀장), 전지은(라펜트 기자)

[시상식 및 전시회]

- 시상식일시: 2017년 9월 26일(화)
- 전시기간: 2017년 9월 22일(금)~26일(화)
- 장소: 2017서울정원박람회장 가든센터
- 주관: 본회 역사문화위원회
- 후원: 국토교통부, 산림청



2017 사목회

- 일시: 매월 네번째 목요일 13:00~
- 장소: 뉴서울C.C
- 주관: 본회 사목회
- 내용: 본회에서는 조경인들의 친목과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골프모임을 주최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조경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사목회 총무(이승용 부회장, 010-3729-1997)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26회 사목회	227회 사목회	228회 사목회
일시	2017년 7월 27일(목), 13:00~	2017년 8월 24일(목), 13:00~	2017년 9월 28일(목), 13:00~
참석	4팀 16명	4팀 16명	4팀 16명

· 지회소식 · 2017 ·

부산시회/부산조경협회

2017 부산조경협회장배 풋살대회 개최

- 일시 : 2017.7.19.(수) 17:30~20:00
- 장소 : 부산 스포원 풋살경기장
- 참석 : 송유경회장 외 풋살대회 참가자 총 50여명



상반기 이사회 개최

- 일시 : 2017.7.19.(수) 20:00~22:30
- 장소 : 부산 늘푸른숲 야영장
- 참석 : 송유경회장 외 이사진 및 풋살대회 참가자 총 70여명



2017 부산정원박람회 개최

- 일시 : 2017.10.18.(수) ~ 10.22.(일) (5일간)
- 장소 : 부산시민공원 (남문, 다솜관일대)
- 개회식 : 10월18일 오전10시 (개회사 - 서병수 부산시장 / 축사 -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
- 추진위원회 : 송유경, 윤종면, 윤은주, 홍중현, 김재화, 김동필, 김해몽, 이성근, 이명옥, 이서하
- 내용 : 부산 최초의 야외 정원박람회로 다양한 전시전, 학술행사, 공연, 꽃과 음식 등 체험존과 공모전, 경진대회 등으로 풍성하게 마련되었으며 18만여명(잠정 집계)이 방문. 특히, 부산시 12곳의 자치구 정원을 비롯하여 시민, 학생들이 공모하여 참여한 14개의 손바닥 정원이 포토존 장소로 인기.



울산시회

7월 회장단 워크숍

- 일자 : 2017.7.7.~8.(금~토) (1박2일)
- 장소 : 사무국
- 내용 : 1박2일간 워크숍으로 하반기 사업결산을 보고하고, 추후 조경사회의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

2017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2기 수료식

- 일자 : 2017.7.20.(월) 14:00~
- 장소 : 울산대공원 환경관
- 추진분과 : 교육분과 (박상건 위원장)
- 내용 : 7주간의 교육과정 후 36명이 수료함. 수료 후에는 울산 공원수목관리업무 수행 중에 실습과 심화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수료생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울산 시민정원사로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무궁화 정원 조성 기념행사 참석

- 일자 : 2017.7.28.(화)
- 장소 : 태화강대공원 무궁화 정원 일원

동경 원예박람회 추진 회의

- 일자 : 2017.8.9.(수)
- 장소 : 사무국
- 내용 : 동경에서 개최하는 원예박람회 관람 및 2박 3일간 동경 내 정원을 답사하는 일정인 투어를 추진

울산 행복학교 조경관리 봉사

- 일자 : 2017.8.31.~9.1.(목~금) (2일간)
- 장소 : 울산 행복학교
- 추진분과 : 시공분과 (윤기덕 위원장)

시민정원사 네트워크 발대식

- 일자 : 2017.9.5.(화). 10:00~
- 장소 : 울산대공원 환경에너지관
- 내용 : 추후 실습과 심화과정을 통해 울산 공원수목관리 봉사활동을 할 계획

9월 회장단 회의

- 일자 : 2017.9.6.(수) 08:00~
- 장소 : 사무국

울산 행복학교 조경관리 자문

- 일자 : 2017.9.13.(수)
- 장소 : 울산 행복학교
- 추진분과 : 시공분과 (윤기덕 위원장)
- 내용 : 조경관리 및 수목 등의 활용에 대한 자문으로 학교 내의 실내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자투리 공간에 조경사회는 정원조성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및 시공 재능기부를 할 계획



울산시 녹색포럼 세미나 참석

- 일자 : 2017.9.21.(목)
- 장소 : 울산시청 의사당 3층
- 주제 :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2017 서울 정원박람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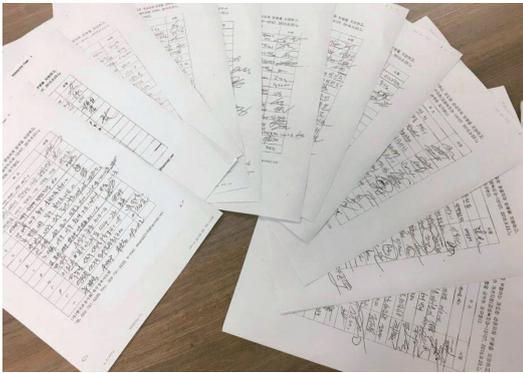
- 일자 : 2017.9.25.(월)
- 장소 : 여의도 공원

· 지회소식 · 2017 ·

대구경북시도회

조경업체 생존권을 침해하는 부당사례 개선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

- 일자 : 2017.07.03.(월) ~ 07.25(화)
- 참석 : 총94개사 1190명 서명 운동 참여
- 내용 : 조경공사 관급자재 과다반영 개선 및 준공 후 유지관리 반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



회장단회의

- 일자 : 2017.07.12.(수)
- 참석 : 집행부 및 부회장, TF팀
- 내용 : 조경업체 생존권을 침해하는 부당사례 개선요청 관련 및 탄원서 서명운동 관련 현황 및 향후 대책 등이 집중 논의



제2회 공원녹지포럼 개최

- 일시 : 2017.09.20.(수) 13:30~17:3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190석)
- 주제 : 신천개발 기본계획 토론회
- 참석 : 관련분야 학자, 설계시공 전문가, 학생, 공무원 등 250여명
- 내용 : *발표자 ①기본계획:용역사, ②식생:김용식교수, ③경관:정태열교수, ④관리:이정웅이사, ⑤사례: 이

제화수석부회장

*토론자(안) 대구시청 도시기반총괄과 남희철과장, 대구시건설교통위원회 이경애시의원, (사)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 이흥회장, 대구시청 공원녹지와 남정문과장, 대구경북습지보전회 회장 이상원회장,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정해준교수, 매일신문 편집부 이동관국장, (사)한국조경학회 영남지회 김수봉회장



회원동정

새로운 회원을 소개합니다.

○개인회원(2017년7월~2017년9월)

유희선(종신물산㈜)

○기업회원(2017년7월~2017년9월)

에이치알이엔씨(주)

대표이사: 이두현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갈곡로8번길 7, 2층 202호(구갈동)

전화: 031-8005-9336 팩스: 031-8005-9334

e-mail: rock880@daum.net

(주)아이세상

대표이사: 오영태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 1211(가산동, 뉴티캐슬)

전화: 02-839-5791 팩스: 02-839-5793

e-mail: kidsin@kidsin.co.kr

사무실 이전 안내

1. 장수산업(주) [본회 기업회원사]

• 대표이사: 김현옥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야탑동, 리더스빌딩) 719호 장수산업(주)

• 전화: 031-828-1114 팩스: 031-828-1110

※소속, 우편발송지, 핸드폰번호, 메일 등 개인정보 변경 시 본회 메일(ksla@chol.com)

또는 사무국(02-565-1712)로 연락주세요.

· 공지사항 및 회원동정 · 2017 ·

공지사항

1. 동탄2신도시 공공정원(작가정원) 개장식

- 일시: 2017.10.31(화), 10:00~11:00
 - 장소: 동탄 작가정원 현장
 - 작가정원 작가: 경주현(경관제작소 대표), 안계동((주)동심원조경 대표), 임춘화(아이디얼가든 대표), 김용택(KnL 환경디자인 스튜디오 소장), 조동범(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윤영주(주)디자인필드 대표, 홍광표(동국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이재연((주)조경디자인 린 대표), 이선화(지호디자인 대표)
- ※본 행사는 화성시와 LH공사 주최로 진행됩니다.

2. 여성조경인 힐링가을답사

- 일시: 2017.11. 04(금), 15:00~
- 장소: 마포 문화비축기지
- 모집대상: 대한민국 여성조경인 누구나 가능
- 참가인원: 40명 (선착순 접수 마감합니다.)

3. 조경시공사레지 답사

- 일시: 2017.11.10(금), 14:00~
 - 장소: 동탄역 푸르지오아파트(화성시 영천동 소재), 망포역 힐스테이트(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6-3 소재)
 - 모집인원: 약40명
 - 모집대상: 조경인 누구나 참가가능
- ※본 행사는 건설사조경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참가인원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조경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위한 이사회의

- 일시: 2017.11.14(화), 15:00~16:00
- 장소: 본회 사무국
- 참가대상: 본회 제19대 회장단(19명), 제19대 상임이사(126명), 제19대 이사(197명)
- 안건: 차기 회장·수석부회장·감사 선출 진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5. 도시재생 주제 세미나

- 일시: 2017.11.15(수), 14:00~17:00
 - 장소: 가든파이브 TOOL관 대회의실
 - 주제: 도시재생과 조경가의 역할
- ※본 행사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참석을 희망하시는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사전 참여신청 부탁드립니다.

6. 조경공사 표준내역서 ver.2017 자료제공

- 제공목적: 조경공사 내역서의 체계화와 내역서 작성의 편의를 목적으로 합니다.
- 제공내용(ver.2017)
 - 1) 조경공사 표준내역서
 - 2) 조경공사 표준내역서 코드표
 - 3)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 4) LH공사 공사원가 산정지침
- 자료다운방법(무료)
 - 1) 아래 링크 참조
<http://www.ksla.or.kr/committee/bbs/read.asp>
 - 2) 본회 홈페이지(www.ksla.or.kr) 위원회>적산위원회 No.10 공지글 참조
- 주관/제공처: 본회 적산위원회

본 회보 제작을 위해 사진을 제공해주신 환경과 조경, 라펜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회비 납부현황

구 분	납부내역	
회장단	2017	(주)서호에코탑(서근성), 유선희(토문엔지니어링)
자문위원	2017	이재학(주)서영엔지니어링, 최재훈(주)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김충일(계림조경(주)), 노영일(주)예건, 한용택(주)이노블록
상임이사	2017	정미숙(에스빠스조경(주)), 최재혁(주)비오이엔씨, 한태환(데오스웍스), 방승준(신림산업(주)), 정운수(아이에스엔지니어링)
이사	2016	정인영(에코아트조경(주))
	2017	김병채(주)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권오병(주)아썸, 이정희(주)산하종합기술, 유희선(종신물산(주))
개인회원	2016	노주호(대성아이디)
	2017	박진수(주)한고연, 우재덕(주)어반하이브연수원
기업회원	2016	(주)에넥스트(신복순), (주)기술사사무소 아텍플러스(안상칠), 한림로덱스(주)(한성필), (주)서호에코탑(서근성), (주)평화엔지니어링(박수웅), 자연제주(이석창)
	2017	(주)비오이엔씨(최재혁), (주)아썸(권오병), 현대산업개발(주)(박창민),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조운자), (주)동백엘앤씨(조석근), 경관제작소 외연(정주현), (주)에넥스트(신복순), (주)판코리아(이종진), 데오스웍스(한태환), 세양조경(주)(박상원), (주)유일종합조경(유오봉), 에이치알이엔씨(주)(이두현), (주)공간세라믹(조백일), 대아이앤씨(주)(강완수), (주)예건(노영일), (주)세인환경디자인(박건형), (주)푸름바이오(박현준), 경원조경(주)(정현호), (주)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안계동), (주)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김병채), (주)이노블록(한용택), 한국토지주택공사(이재영), (주)아이세상(오영태)

2017년 7월1일~9월30일 입금기준

회비금액 명예회장/고문 : 연회비 없음, 회 장 : 6,000,000원, 부회장/감사 : 1,000,000원, 상임이사 : 200,000원,
이사/기술위원 : 150,000원, 자문위원 : 100,000원, 경회원(개인회원) : 50,000원, 경회원(기업회원) : 300,000원

납부방법 기업은행 132-048923-04-016 예금주: (사)한국조경사회
(계좌이체시 회원가입 성명과 입금하시는 성명을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모든 업무와 활동을 회비 수입금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사)님께서서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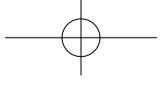
협찬현황

조경사회보 제104호 광고

- 1,000,000원: 미주강화(주)(윤복모), (주)예건(노영일)

제27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

- 5,000,000원: (주)그룹이십일(이용훈), (주)이노블록(한용택)
- 3,000,000원: (주)예건(노영일), 키그린(주)(박서영), (주)건림원(설승진), 동탄정원작가일동(김용택, 안계동, 윤영주, 이선화, 이재연, 임춘화, 정주현, 조동범, 홍광표)
- 2,000,000원: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김창환), (주)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안계동), (주)아르디온(오승재), 본회 시공담당분과/(주)서원이앤씨(이승용), 본회 소재담당분과/미주강화(주)(윤복모), 본회 사회공헌위원회/(주)스페이스톡(정재욱)
- 1,200,000원: 본회 기획담당분과(제상호, 오두환, 오화식, 윤수희)
- 1,000,000원: (주)원앤티에스(이조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사업협의회(조정일/김재준), (주)디자인파크개발(김요섭), (주)청우퍼스테이션(신경근), 현대산업개발(주)(류제중), 신림산업(주)(방승준), 경관제작소외연(정주현), 태광테크(주)(최병도), 아세아환경조경(박준석), (주)도화엔지니어링(문상규), 본회 복지담당분과(김태용, 홍석진, 양재호)
- 500,000원: (주)자인(박주현), 한광엔지니어링(주)(이정석), (주)그룹한어소시에이트(박명권), (주)송림원(임상규), (주)에코랜드(이응열), (주)공간세라믹(조백일), (주)나루(최상돈), 원석조경건축(주)(고연표), 현대장미원(김성래), (주)한설그린(한승호), (주)아이세상(오영태), 본회 회장(최종필), 본회 정원문화위원회/(주)가원조경설계사무소(안세현), 본회 식물생태위원회/(주)대지개발(이동석), 본회 조경연합추진위원회/(주)형호엘앤씨(김중호)
- 400,000원: 형진조경(주)(강이호)
- 300,000원: (주)스마일그룹(장영환), (주)건화(노찬기), (주)세민조경(김세현), (주)동일기술공사(박동천), (주)평화엔지니어링(박승자), 동부엔지니어링(주)(조의섭), (주)글로벌이앤씨(박덕철), 오산시청 녹지직 일동, 본회 시공위원회/도담조경(주)(조용우), 본회 법제담당분과(김철홍, 김홍철, 장현숙, 이대훈), 본회 감리위원회(유재호), 본회 국제담당분과(김선일, 윤성용, 조운자), 본회 선진기술위원회/(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조운자), 본회 조경연합추진연구소/(주)신화컨설팅(최원만), 본회 감사/서안알앤디조경디자인(주)(신현돈), 본회 여성위원회/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남은희)
- 물품협찬
K-water(생수 1000병)
(주)디자인파크개발(블루투스 · 휴대폰충전기 25세트)
(주)한설그린(티슈 200개)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에 더욱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한국조경사회 제19대 집행부 배상



2017
조경인 한마음
대축제

2017.09.22(금) 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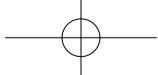
● 제27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

장 소 | LH 동탄사업본부 옆 근린공원
네 비 | LH 동탄사업본부

주 최 | (사)한국조경사회

장 소 | LH
네 비 | LH 동탄사업본부

한국조경사회



조경사 회보 원고(제안) 및 광고(협찬)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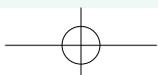
한국조경사회에서는
계절마다 회원들에게 찾아가는 조경사 회보가 조경인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 소식지의 성격을 넘어
다양한 정보의 장이자 소통의 장으로써 점차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인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매체로써
회보에 담고자하는 콘텐츠에 관한 제안 뿐만 아니라 집필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협찬을 통해 보다 양질의 회보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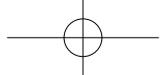
대한민국 조경인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보 관련 제안 : 자율양식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작성 : 먼저 전화 문의를 주신 후 분량 등의 협의를 거쳐 게재 때 내부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광고(협찬) : A4 사이즈의 전면 광고로 1회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한국조경사회 |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401(신천동, 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T 02.565.1712 F 02.565.1713 E ksla@chol.com H www.ksla.or.kr





(주)건림원 | KUNLIMWON | 建林園

LANDSCAPE, URBAN, ARCHITECTURE & CIVIL ENGINEERING Co.,Ltd



1.



2.



3.



4.



(주)건림원은 1978년 회사 설립 이후 40년간 "조경공사업" 에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경에 대한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월드컵 난지천공원, 영종도 해변공원, 동탄 청계중앙공원, 안양 병목안 시민공원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으로 부터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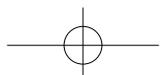
우수한 품질의 조경수를 직접 조달하기 위하여 여주, 진천, 원곡 등에 조경수 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수많은 시공 경험을 보유한 시공 전문가는 물론 우수한 실력의 조경설계 전문 디자이너 또한 보유하고 있어, 설계의도를 최상의 시공품질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회사입니다.

1. 서울 영등포공원
2. 안양 병목안 시민공원
3. 인천 영종도 해변공원
4. 용산 국제학교
5. 화성동탄 청계중앙공원

www.kunlimw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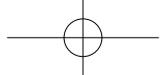
 주식회사 건림원

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97, 11층 (효원빌딩)
T. 02-542-8160 F. 0505-300-8160
Email. contact@kunlimwon.com



기업회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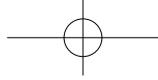
	가가조경(주) 대표이사 : 이승훈 gagajal@empal.com Tel. 031-907-6877 Fax. 031-907-8633		(주)가나안건설 대표이사 : 김찬수 cna1667@gmail.com Tel. 02-2040-7722 Fax. 02-584-0866		(주)가림환경개발 대표이사 : 전부영 biogro@hanmail.net Tel. 02-2653-3338 Fax. 02-2065-9437		(주)가원조경설계사무소 대표이사 : 안세현 gaone@chol.com Tel. 02-501-2555 Fax. 02-501-1742		(주)강현 대표이사 : 여희순 da4882@hanmail.net Tel. 062-574-4881 Fax. 062-574-4883
	거삼조경(주) 대표이사 : 예중서 geasam@chol.com Tel. 02-482-1522 Fax. 02-482-1526		(주)건림원 대표이사 : 윤오임 ki8160@chol.com Tel. 02-542-8160 Fax. 0505-300-8160		경관제작소 외연 대표이사 : 정주현 jajak1472@hanmail.net Tel. 031-707-3313 Fax. 0303-3447-1472		경원조경(주) 대표이사 : 정현호 kw4066@hanmail.net Tel. 031-921-4066 Fax. 031-921-4966		경일산업(주) 대표이사 : 김승모 admin@kyungil.com Tel. 02-2648-8000 Fax. 02-2648-3763
	계림조경(주) 대표이사 : 김홍일 keilima@chol.com Tel. 02-597-5023 Fax. 02-597-5028		계림폴리콘 대표이사 : 민병윤 polycon@polycon.co.kr Tel. 02-573-3865 Fax. 02-574-5649		(주)공간세라미 회장 : 조백일 gonggan@chollian.net Tel. 02-569-2800 Fax. 02-569-0039		광진산업 대표이사 : 김영기 hys0440@hanmail.net Tel. 053-857-9443 Fax. 053-857-9445		(주)그림21 대표이사 : 이용훈 groc21@chollian.net Tel. 02-588-2021 Fax. 02-588-2024
	(주)그룹·한 대표이사 : 박명권 grouphan@groupphan.com Tel. 02-521-1122 Fax. 02-521-9858		(주)그린라인 대표이사 : 황선숙 greenline9@naver.com Tel. 031-889-1541 Fax. 031-896-3100		그린조경 대표이사 : 박종철 landgreen114@hanmail.net Tel. 031-234-5476 Fax. 031-239-7621		(주)금강아트웍스 대표이사 : 전종열 artfence@chol.com Tel. 033-745-8373 Fax. 033-745-8378		기단조경기술사사무소(주) 대표이사 : 윤인규 kidaneng@hanmail.net Tel. 051-514-0413 Fax. 051-514-0417
	(주)기술사사무소아텍플러스 대표이사 : 안상철 artech99@chol.com Tel. 02-567-0841 Fax. 02-567-0842		기술사사무소 예당 대표이사 : 오두환 yedangla@chol.com Tel. 02-6242-3537 Fax. 02-6242-3540		(주)기술사사무소 LET 대표이사 : 정중수 letlet@chol.com Tel. 02-424-7182 Fax. 02-424-7175		김중해조경설계(주) 대표이사 : 김중해 kjh9067@chol.com Tel. 031-704-8051 Fax. 031-709-8053		꽃그린 대표이사 : 김영분 flori@hanmail.net Tel. 031-632-5588 Fax. 031-633-9044
	(주)나루 대표이사 : 최상돈 naru06@chol.com Tel. 02-2051-4155 Fax. 02-2051-4157		나무의소망 대표이사 : 김대수 namu@woodsign.com Tel. 031-592-4978 Fax. 031-592-9984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조운자 nakos0097@hanmail.net Tel. 031-627-2800 Fax. 031-629-5146		(주)다비드조경 대표이사 : 이정민 dlc503@naver.com Tel. 031-554-4378 Fax. 031-554-4379		(주)더우리디자인그룹 대표이사 : 위영준 dawoori@chol.com Tel. 02-575-4508 Fax. 0303-3440-4507
	(주)다정하이테크 대표이사 : 송미선 jhs121@hanmail.net Tel. 032-577-4970 Fax. 032-572-4972		(주)대목함경건설 대표이사 : 최석호 daemok@daemok.co.kr Tel. 031-718-2701 Fax. 031-715-2710		(주)대성이아이디 대표이사 : 노주호 dsid@dreamwiz.com Tel. 053-765-2223 Fax. 053-761-7908		대이앤씨(주) 대표이사 : 강연수 daea1211@hanmail.net Tel. 051-853-7700 Fax. 051-852-3399		(주)대지개발 대표이사 : 이동석 daeji@lifesoil.co.kr Tel. 02-832-3500 Fax. 02-844-6012
	더 자이언트(주) 대표이사 : 임병을 admin@theziant.com Tel. 02-6223-3210 Fax. 02-6223-3219		데오스웍스 대표이사 : 한태환 deosworks@chol.com Tel. 02-862-3444 Fax. 02-862-3449		(주)도광 대표이사 : 전성미 21mirim@naver.com Tel. 032-431-0548 Fax. 032-431-0549		(주)도원도시 대표이사 : 조정일 downcity@chol.com Tel. 02-448-8855 Fax. 02-448-1076		(주)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오세환, 노진영, 박승우, 황준성 kim7221@dohwa.co.kr Tel. 02-6323-3921 Fax. 02-568-3774
	동림산업 대표이사 : 김성무 tov@korea.com Tel. 02-585-1119 Fax. 031-721-3873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 조경부 대표이사 : 전정수 june1127@naver.com Tel. 02-6211-7697 Fax. 02-6211-7582		(주)동백엔앤씨 대표이사 : 조석근 dnp9000@hanmail.net Tel. 031-781-5272 Fax. 031-781-5274		(주)동심원 대표이사 : 안계동 dsw96@chol.com Tel. 02-544-5674 Fax. 02-544-5697		동이앤씨(주) 대표이사 : 한상원 daei@daei.co.kr Tel. 031-777-8321 Fax. 031-777-8325
	동양워터테크(주) 대표이사 : 장경현 fountain@chol.com Tel. 02-486-4900 Fax. 031-211-1517		기술사사무소 동인조경마당 대표이사 : 황용득 madang96@chollian.net Tel. 02-2202-0293 Fax. 02-2202-0294		(주)동일기술공사 대표이사 : 김수보 psch@dongileng.co.kr Tel. 02-2152-2160 Fax. 02-2152-2189		두하엔터프라이즈(주) 대표이사 : 이봉경 duha3@chol.com Tel. 02-414-1051 Fax. 02-414-1056		(주)디자인카고 대표이사 : 김태용 gagy0329@chol.com Tel. 02-564-3680 Fax. 02-568-4372
	(주)디자인파크개발 대표이사 : 김요섭 dp566@hanmail.net Tel. 02-2665-6006 Fax. 02-706-9773		(주)라모디자인그룹 대표이사 : 이승환 lamo@lamo.co.kr Tel. 031-709-6614 Fax. 031-709-6612		(주)라이브스케이프 대표이사 : 유승중 sjyoo@livescape.co.kr Tel. 02-579-4995 Fax. 02-2680-2015		(주)라인조경설계사무소 대표이사 : 윤수희 line2297@chol.com Tel. 02-557-5031 Fax. 02-557-8629		라펜트(주) 대표이사 : 오휘영 lafent@lafent.com Tel. 031-932-3122 Fax. 031-902-3129
	레인보우스케이프(주) 대표이사 : 정윤익 cec@rainbowscape.com Tel. 031-768-1891 Fax. 031-768-1894		(주)맥디자인 대표이사 : 박해원 mac0570@chol.com Tel. 031-997-0454 Fax. 031-997-0456		(주)멜리오유니온랜드 대표이사 : 황선주 seou@unionland.com Tel. 052-277-4200 Fax. 052-265-7227		(주)명산GFRC 대표이사 : 김득일 ms0415@chol.com Tel. 02-445-8992 Fax. 02-445-8993		명일조경 대표이사 : 이혜상 201loveyou@naver.com Tel. 02-481-1850 Fax. 02-481-1853
	(주)목우환경디자인 대표이사 : 엄미란 mkwoo92@chol.com Tel. 02-501-0206 Fax. 02-501-0380		(주)미도랜드 대표이사 : 이무성 mslee@midoland.com Tel. 02-536-1348 Fax. 031-434-0925		미성조경자재 대표이사 : 정종민 emija@emija.com Tel. 1566-5406 Fax. 031-968-2699		미주강화주식회사 대표이사 : 윤복모 mijoo33@chol.com Tel. 02-475-1736 Fax. 02-472-1098		방림이엘씨(주) 대표이사 : 김재준 banglimcorp@hanmail.net Tel. 02-572-4401 Fax. 02-572-4415
	(주)배성조경개발 대표이사 : 김승환 b582@chol.com Tel. 02-532-7417 Fax. 02-532-8425		백상엔앤씨(주) 대표이사 : 조현재 bsland@unitel.co.kr Tel. 031-782-5300 Fax. 031-782-5302		북한산조경개발 대표이사 : 김기수 mks5775@naver.com Tel. 031-965-2335 Fax. 031-964-8523		비에프현무암(주) 대표이사 : 이민호 alpha0820@hotmail.com Tel. 031-851-3067 Fax. 031-853-3067		비엔지(주) 대표이사 : 이병렬 bg21@chol.com Tel. 031-761-5313 Fax. 031-766-5314



 (주) 비오이엔씨 대표이사 : 최재혁 beohenc@korea.com Tel. 02-425-4954 Fax. 02-425-4943	 (주)삼우CM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한중률 jinshehb@hanmail.net Tel. 02-3400-3114 Fax. 02-3400-3584	 삼홀엘앤씨(주) 대표이사 : 정복현 shlia93@chol.com Tel. 032-425-7007 Fax. 032-425-7008	 상록건설(주) 대표이사 : 김창환 ss4572@srconst.com Tel. 032-556-2066 Fax. 032-556-2067	 상록조경(주) 대표이사 : 김주환 saroc@hanmail.net Tel. 041-592-7442 Fax. 041-592-7446
 새한그린 대표이사 : 박광일 saehan2003@empal.com Tel. 02-2138-1000 Fax. 02-2138-1005	 (주)샘라이팅 대표이사 : 이이흔 ih@saem.co.kr Tel. 02-3487-2222 Fax. 02-3487-2332	 서경건설개발(주) 대표이사 : 오성균 land02@hanmail.net Tel. 02-501-9140 Fax. 02-501-9259	 (주)서브원 대표이사 : 이규홍 kong1007@serveone.co.kr Tel. 031-8026-6674 Fax. 031-8026-6611	 서안일앤디조경디자인(주) 대표이사 : 신현돈 shinhyeondon@korea.com Tel. 02-576-5171 Fax. 02-3463-7009
 (주)서호에코탑 대표이사 : 서근성 seohoblock@hanmail.net Tel. 02-547-4136~7 Fax. 02-547-4134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유상천 huheun@sunj.in.co.kr Tel. 02-2670-5659 Fax. 02-2670-5658	 성우하이테크 대표이사 : 박익진 4736000@naver.com Tel. 02-473-6000 Fax. 02-473-4433	 (주)성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이유경 lascap@chol.com Tel. 02-3400-6800 Fax. 02-3480-6810	 세림조경 대표이사 : 하영대, 조정운 seilmland@hanmail.net Tel. 02-6419-0071 Fax. 02-512-5161
 세림조경건설(주) 대표이사 : 심왕섭 selimla@chol.com Tel. 02-577-2231 Fax. 02-577-6897	 세양조경(주) 대표이사 : 박상원 seyangl@chol.com Tel. 031-275-3561~3 Fax. 031-275-3564	 (주)세인환경디자인 대표이사 : 박진형 seined@naver.com Tel. 02-877-8895 Fax. 02-877-8812	 주식회사 세주 대표이사 : 김간선 saeju0969@naver.com Tel. 031-8021-0670 Fax. 031-8021-0672	 (주)셀림원 대표이사 : 임상규 treeyim@hanmail.net Tel. 02-586-0025 Fax. 02-581-5225
 (주)수프로 대표이사 : 채일 ceo@yahoo.co.kr Tel. 02-578-4532 Fax. 02-6008-2453	 수하미조경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정희 4300921@naver.com Tel. 02-430-0923 Fax. 02-430-0925	 (주)스페이스톡 대표이사 : 정재욱 master@spacetalk.co.kr Tel. 02-525-3274 Fax. 02-525-3276	 승진조경(주) 대표이사 : 곽원제 spius2010@naver.com Tel. 02-543-6601 Fax. 02-543-6698	 신림산업(주) 대표이사 : 방승준 sinrim23@hanmail.net Tel. 031-389-8890~1 Fax. 031-389-8892
 신성종합조경(주) 대표이사 : 최호영 sst2000@hanmail.net Tel. 02-2052-7194 Fax. 02-2052-7011	 (주)신우이엔지 대표이사 : 김순하 sinwlighting@naver.com Tel. 033-661-3099 Fax. 033-662-3099	 (주)신화건설링 대표이사 : 최원만 synwha@chol.com Tel. 02-545-5903 Fax. 02-549-5905	 (주)씨토포스 대표이사 : 최신현 ctopos@chol.com Tel. 02-553-0808 Fax. 02-553-8440	 아섬 대표이사 : 권오병 assum@assum.co.kr Tel. 02-502-0724 Fax. 02-502-0725
 아이서비스(주) 대표이사 : 김종수 minipark@service.co.kr Tel. 02-2008-8581 Fax. 02-2008-8880	 (주)아쿠아테크코리아 대표이사 : 장진수 aquatech@unitel.co.kr Tel. 031-471-4756 Fax. 031-471-4770	 안스디자인 대표이사 : 안영애 ad003@chol.com Tel. 02-3448-5677 Fax. 02-3448-5676	 (주)에넥스트 대표이사 : 신복순 enext2002@hanmail.net Tel. 1544-9611 Fax. 051-920-2744	 (주)에버그린필드 대표이사 : 이호열 hyso440@hanmail.net Tel. 053-744-0440 Fax. 053-793-0444
 에스페이스조경(주) 대표이사 : 정미숙 espace7@empal.com Tel. 02-482-1758 Fax. 02-483-1758	 (주)에코스타일 대표이사 : 맹시호 ecostyle1@naver.com Tel. 041-885-9001 Fax. 041-885-9003	 에코아트조경(주) 대표이사 : 정인영 dongwoo1088@naver.com Tel. 02-2267-1088 Fax. 02-2279-1600	 에코앤바이오(주) 대표이사 : 장성완 edla@econbio.com Tel. 031-595-9260 Fax. 031-595-9263	 (주)에코톤 대표이사 : 송병연 kangsh@ecotonu.com Tel. 070-8808-5499 Fax. 031-713-0629
 (주)에프씨코리아랜드 대표이사 : 서성경 fc4u@hanmail.net Tel. 02-3141-1174 Fax. 02-3141-1175	 (주)엔쓰컴퍼니 대표이사 : 허수경 nih.chargepole@gmail.com Tel. 02-583-1713 Fax. 02-523-3039	 (주)엔엠에스 대표이사 : 신선숙 sss4875@naver.com Tel. 043-882-3933 Fax. 0505-115-3933	 (주)엘그린 대표이사 : 이성호 lgreen@naver.com Tel. 02-572-8643 Fax. 02-572-1149	 (주)에원포아기든 대표이사 : 최봉길 yesone9@naver.com Tel. 02-574-8387 Fax. 02-574-8388
 영림화원 대표이사 : 이춘희 yulmae@hanmail.net Tel. 02-502-0508 Fax. 02-503-0629	 영림조경건설(주) 대표이사 : 한옥근 yylat1994@chol.com Tel. 02-960-1981 Fax. 02-967-9725	 (주)영원산업개발 대표이사 : 김진선 yw6781@hanmail.net Tel. 02-588-6781 Fax. 02-586-7525	 (주)에켄 대표이사 : 노영일 yekun@chol.com Tel. 031-943-6114 Fax. 031-943-6698	 (주)에원포아기든 대표이사 : 최봉길 yesone9@naver.com Tel. 02-574-8387 Fax. 02-574-8388
 (주)오엘건설링 대표이사 : 변문기 evodia@olec.com Tel. 051-816-6773 Fax. 051-816-8245	 (주)온유조경 대표이사 : 김정식 onuland@naver.com Tel. 02-578-4410 Fax. 02-578-4471	 (주)온주조경 대표이사 : 서동진 onjo06450864@hanmail.net Tel. 041-545-0864 Fax. 041-544-0864	 용인로템파크교회 수목장 대표이사 : 최성근 rodem299@naver.com Tel. 031-321-0044 Fax. 031-321-0202	 우영조경건설(주) 대표이사 : 주영수 woo-94@hanmail.net Tel. 031-266-6801 Fax. 031-575-6840
 우인이엔씨 대표이사 : 류근환 woonco@naver.com Tel. 032-462-3300 Fax. 0303-3130-3306	 원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정삼진 cjin0413@hanmail.net Tel. 02-418-2428 Fax. 070-4015-3114	 원석조경건설(주) 대표이사 : 고연표 syp@wonsuk.co.kr Tel. 031-708-8644 Fax. 031-713-3924	 (주)원앤티에스 대표이사 : 이조원 wonnts@hanmail.net Tel. 02-338-2882 Fax. 02-338-7890	 (주)유니텍홀츠 대표이사 : 남성돈 uh7123@hanmail.net Tel. 031-674-7123 Fax. 031-674-7124
 유림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 김은성 yuimla@chol.com Tel. 02-579-4815 Fax. 02-579-4817	 (주)유일종합조경 대표이사 : 우오봉 uiland@naver.com Tel. 02-591-3597 Fax. 02-591-6304	 육임조경(주) 대표이사 : 육경준 iyookim@hanmir.com Tel. 02-502-6226 Fax. 02-503-6595	 (주)은강조경산업 대표이사 : 서해석 ekland2002@hanmail.net Tel. 02-412-7146 Fax. 02-412-7147	 (주)은평조경 대표이사 : 홍재설 hjs20c@hanmail.net Tel. 02-577-7260 Fax. 02-579-7888
 (주)이건환경 대표이사 : 한승준 glanc@eagon.com Tel. 031-999-3830 Fax. 031-987-9150	 (주)이노블록 대표이사 : 한용택 hanyt49@hanmail.net Tel. 031-358-4711 Fax. 031-358-4714	 이랜드체육산업(주) 대표이사 : 조석현 eland21c@naver.com Tel. 032-564-7681 Fax. 032-564-7684	 (주)이산 대표이사 : 이원찬 la@mws.co.kr Tel. 031-389-0286 Fax. 031-389-0298	 이명회화예연구소 대표이사 : 이명혜 itodeco@hanmail.net Tel. 031-637-5498 Fax. 031-637-5498

기업회원사

 <p>이우드코리아 대표이사 : 이근식 ikunsig@hanmail.net Tel. 02-446-0347 Fax. 02-446-0361</p>	 <p>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이사 : 진승범 ewoend@naver.com Tel. 02-425-3024 Fax. 02-425-3035</p>	 <p>(주)인도어가든 대표이사 : 한은화 lei0328@naver.com Tel. 02-543-1326 Fax. 031-421-1326</p>	 <p>(주)인테크 대표이사 : 김재훈 rubbermal55@naver.com Tel. 031-989-6142 Fax. 031-989-6144</p>	 <p>일영산업 대표이사 : 박왕진 tree7410@naver.com Tel. 02-2213-0924 Fax. 02-2213-5445</p>
 <p>임광조경(주) 대표이사 : 임성광 limkwang0817@hanmail.net Tel. 02-573-3042 Fax. 02-529-7864</p>	 <p>(주)자연과환경 대표이사 : 정대열 hawky@nate.com Tel. 02-557-9951 Fax. 02-557-9830</p>	 <p>자연제주 대표이사 : 이석창 jeju2345@bill36524.com Tel. 064-733-2345 Fax. 064-762-2345</p>	 <p>주식회사 자인 대표이사 : 박주현 zaingroup@naver.com Tel. 02-6289-5100~1 Fax. 02-6289-5102</p>	 <p>(주)집초 대표이사 : 정용주 jc1200@hanmail.net Tel. 031-592-0364 Fax. 031-796-4842</p>
 <p>장수산업(주) 대표이사 : 김현욱 js0080@chol.com Tel. 031-753-0080 Fax. 031-721-6786</p>	 <p>장우조경 대표이사 : 박태욱 jue85@hanmail.net Tel. 02-2252-0815 Fax. 02-2252-0816</p>	 <p>(주)장원조경 대표이사 : 신경준 shin2460@hanmail.net Tel. 02-578-4590 Fax. 02-578-4591</p>	 <p>쟁이원경디자인 대표이사 : 김민중 jengil10@nate.com Tel. 043-222-3719 Fax. 043-222-3720</p>	 <p>전원조경 대표이사 : 채희용 jwa0364@hanmail.net Tel. 031-592-0364 Fax. 031-592-0365</p>
 <p>정진종합조경(주) 대표이사 : 김창희 jeongjinco@hanmail.net Tel. 044-868-7695 Fax. 044-868-7696</p>	 <p>(주)정환조경 대표이사 : 정영환 chung9388@hanmail.net Tel. 02-424-8855 Fax. 02-415-2588</p>	 <p>(주)제일에코텍 대표이사 : 박윤희 jucheil@chol.com Tel. 02-3463-6856 Fax. 02-3463-6858</p>	 <p>조경디자인인(주) 대표이사 : 이재연 lhyn@lhyn.com Tel. 02-516-4222 Fax. 02-516-4297</p>	 <p>(주)조경사 엔앤씨 대표이사 : 김성찬 kscod@hanmail.net Tel. 031-889-6710 Fax. 031-889-6106</p>
 <p>(주)조경설계 비욘드 대표이사 : 노환기 beyond@chol.com Tel. 02-2202-2050 Fax. 02-2202-0597</p>	 <p>(주)조경설계 서안 대표이사 : 정영선 satia@chol.com Tel. 02-579-7008 Fax. 02-576-7009</p>	 <p>(주)조인조경 대표이사 : 김영일 joinland@joinlands.co.kr Tel. 031-544-4414 Fax. 031-544-4415</p>	 <p>지오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 이상진 gola1999@chol.com Tel. 02-501-0935 Fax. 02-501-0959</p>	 <p>진랜드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최홍우 jinland2@daum.net Tel. 02-2628-5680 Fax. 02-2628-5688</p>
 <p>진성조경건설 대표이사 : 김태웅 escapedavid@empal.com Tel. 031-706-3931 Fax. 031-706-3928</p>	 <p>진솔조경주식회사 대표이사 : 김옥희 sungyeun@naver.com Tel. 031-262-9881 Fax. 031-262-9882</p>	 <p>창대JNC 조경설계사무소 대표이사 : 홍갑진 cdjnc@chol.com Tel. 02-413-5604 Fax. 02-413-5669</p>	 <p>(주)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 김병채 chaem@chol.com Tel. 02-423-7611 Fax. 02-423-7613</p>	 <p>(주)천마이엔씨 대표이사 : 제삼호 cmenc@chol.com Tel. 02-576-1041 Fax. 02-576-1817</p>
 <p>천지조경(주) 대표이사 : 정국선 chunjijik@chol.com Tel. 02-388-3707 Fax. 02-388-3710</p>	 <p>철박물관 대표이사 : 정인경 chilqudwomir@naver.com Tel. 043-883-2321 Fax. 043-883-2322</p>	 <p>(주)청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장대수 skjids@hanmail.net Tel. 051-508-6323 Fax. 051-508-3518</p>	 <p>청우개발 대표이사 : 이재홍 cwdc@chungwoo.co.kr Tel. 02-3489-2000 Fax. 02-522-6349</p>	 <p>청운환경개발(주) 대표이사 : 이문식 sungju97@korea.com Tel. 033-765-7596 Fax. 033-765-7597</p>
 <p>청원조경(주) 대표이사 : 하석일 nofada119@hanmail.net Tel. 031-776-3111~2 Fax. 031-776-3113</p>	 <p>(주)청림종합기술 대표이사 : 심장진 land3670@chol.com Tel. 02-406-2987 Fax. 02-406-3670</p>	 <p>(주)케이엘에스 대표이사 : 정길균 ksl@ksl.or.kr Tel. 031-434-1038 Fax. 031-434-1039</p>	 <p>코비텍 대표이사 : 권우중 gasolsong@hanmail.net Tel. 031-797-6820 Fax. 031-797-6821</p>	 <p>코오롱글로벌(주) 대표이사 : 최석순 gloster@olon.com Tel. 02-3677-5895 Fax. 02-3677-5903</p>
 <p>콤파코리아(주) 대표이사 : 이세근 kids@kompankorea.com Tel. 02-3473-9617 Fax. 02-3473-9675</p>	 <p>키그린(주) 대표이사 : 박서영 keygreen@naver.com Tel. 031-548-1199 Fax. 070-8673-8572</p>	 <p>(주)태풍F&G 대표이사 : 이종수 thing@naver.com Tel. 02-2611-0810 Fax. 02-2611-0833</p>	 <p>토담원경디자인 대표이사 : 김민희 soap2k@naver.com Tel. 031-8001-0017 Fax. 031-281-0105</p>	 <p>(주)판코리아 대표이사 : 이종진 jinjaroo@daum.net Tel. 042-824-6734 Fax. 042-825-6735</p>
 <p>(주)평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정수용 ric@pec.ne.kr Tel. 031-420-7804 Fax. 031-420-7810</p>	 <p>포스코건설 대표이사 : 정병화 138186@poscoenc.com Tel. 032-748-2777 Fax. 032-748-4043</p>	 <p>푸른나무조경(주) 대표이사 : 이영욱 poorun1@hanmail.net Tel. 032-885-9853 Fax. 032-885-9854</p>	 <p>(주)푸름바이오 대표이사 : 박현준 purum1@hanmail.net Tel. 031-291-3375 Fax. 031-291-3374</p>	 <p>풍산조경(주) 대표이사 : 한순희 poongsan1@hanmail.net Tel. 032-566-4862 Fax. 032-566-4863</p>
 <p>필드마스터(주) 대표이사 : 최태식 fm87448@hanmail.net Tel. 055-342-9461 Fax. 055-342-9465</p>	 <p>한국가로수보호(주) 대표이사 : 최병선 accounting@urbansys.co.kr Tel. 02-387-2311 Fax. 02-353-8837</p>	 <p>한국농어촌공사 대표이사 : 이상무 songsh0425@ekr.or.kr Tel. 061-338-5114</p>	 <p>(주)한국도시녹화 대표이사: 김철민 sp21kcm@hanmail.net Tel. 02-414-1117 Fax. 02-6007-163</p>	 <p>한국론타이(주) 대표이사 : 우규일 rontai@korea.com Tel. 02-812-2377 Fax. 02-816-2377</p>
 <p>한국씨씨일(주) 대표이사 : 변동원 cor8311@naver.com Tel. 031-781-8311 Fax. 031-708-8411</p>	 <p>한국조경개발(주) 대표이사 : 민윤재 hankukla@chol.com Tel. 032-321-9006 Fax. 032-321-0092</p>	 <p>(주)한국조경기술평가사무소 대표이사 : 전효중 sejunpark@empas.com Tel. 02-541-4654 Fax. 02-2226-4654</p>	 <p>(주)한국종합기술 대표이사 : 이강록 firewind@kecc.co.kr Tel. 02-2049-5614 Fax. 02-2049-5097</p>	 <p>한림로텍스(주) 대표이사 : 맹홍호 lodex@hanmail.net Tel. 02-2203-1566 Fax. 02-3431-5371</p>
 <p>한림에코텍(주) 대표이사 : 한성식 ccw815@chol.com Tel. 02-3445-8921 Fax. 031-735-8080</p>	 <p>(주)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 김경윤 hanlim@hanlimia.co.kr Tel. 02-564-3311 Fax. 02-564-3314</p>	 <p>한솔그린(주) 대표이사 : 한성호 hgreen@chol.com Tel. 02-3411-0898 Fax. 02-3411-0845</p>	 <p>(주)한솔에스앤디 대표이사 : 김영욱 kyw9382@dreamwiz.com Tel. 031-596-6501 Fax. 031-596-6500</p>	 <p>한일개발(주) 대표이사 : 윤우열 hanide@chol.com Tel. 031-704-1700 Fax. 031-709-4908</p>
 <p>주식회사 해움조경 대표이사 : 김충열 cj4009@naver.com Tel. 041-564-3939 Fax. 041-551-9114</p>	 <p>해울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한정중 rabbt2311@hanmail.net Tel. 02-2027-6030~4 Fax. 02-2027-6035</p>	 <p>현대산업개발(주) 대표이사 : 김재식, 정문규 jiryu@hyundai-dvp.com Tel. 02-2008-9558 Fax. 02-2008-9004</p>	 <p>형진조경(주) 대표이사 : 김지호 hinland@chol.com Tel. 02-592-1545 Fax. 02-592-1662</p>	 <p>(주)형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김중호 hhow9526@naver.com Tel. 02-2057-5204 Fax. 02-571-5203</p>



(주)예건의 서까래 퍼걸러8종이 작년에 이어 조달청 우수제품에 추가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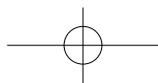
YP-543(서까래퍼걸러), YP-555(코니스퍼걸러), YP-556(서까래사각퍼걸러) 등
(주)예건의 서까래 지붕 디자인의 퍼걸러 시리즈 8종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 가을 조달청 우수제품에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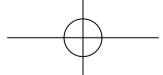
예건은 디자인강소기업의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의 디자인과 품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www.yekun.com

YEKUN 주식회사 예건

본사 경기도 파주시 신촌3로 1 T.031-943-6114 F.031-943-6698 E.yekun@yekun.com
디자인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78-16 2F T.02-324-1140 F.02-324-3270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나라장터 물품 식별번호 21889384)

사람들의 잦은 통행으로 잔디 손상이 걱정되십니까? 시그마매트(잔디보호매트)가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주요 적용 사례

서울 시청 광장



[시그마매트 설치 3개월 후]



[촛불집회 직 후]

서울 송파나루



[시그마매트 설치 직 후]



[시그마매트 설치 1년 후 (빗꽃축제)]

서울 어린이대공원



[시그마매트 설치 직 후]



[시그마매트 설치 3년 후]

세종 호수공원



[시그마매트 설치 전]



[시그마매트 설치 3년 후]

부산 송상현 광장



[시그마매트 설치 직 후]



[시그마매트 설치 3개월 후]

제주 성산일출봉



[시그마매트 설치 직 후]



[시그마매트 설치 6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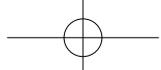
시공(납품)실적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각 구청, 부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제주도특별자치도, 성남시청, 안산시청, 수원시청, 경주시청, 순천시청,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 숲, 제주성산일출봉, 남양주시청, 의정부시청, 기장군청, 안양베네스트 외 전국 300여개 골프장



[본사 / 공장]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129번길 23-15
T. 031-798-0112 / F. 031-769-5999
[서울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총민로10 가든파이브 톨동 9층 S-20호
T. 02-408-8572 / F. 070-8673-8572
E. keygreen@naver.com





NAVER 이노블록

New 콘다(kodah)



대리점 모집중 대상 : 단독/전원주택건설사, 건자재 유통, 보도블록 & 옹벽 시공사 등

대리점 신청방법 방법 1. 전화 신청 : 031-350-0387
방법 2. 이메일 신청 : shcho@inoblock.bizmeka.com

전원주택 정원 - 설계부터 시공까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드립니다!



Only one, Best one!
주이노블록

Technical Partnership

NIKKO JPN

GODELMANN GER

ANCHOR USA

ROSETTA USA

본사·제1공장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석포로 74번길 10-46 / www.inoblock.co.kr / Tel. 031-358-4711